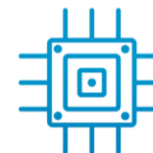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 SET와 부품의 괴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SK증권 이동주, 김영우, 안영진





Analyst
이동주
natelee@sk.co.kr
02-3773-9026



Analyst
김영우
hermes_cmu@sk.co.kr
02-3773-9244



Economist
안영진
Youngjin.an@sk.co.kr
02-3773-8478

SET와 부품의 괴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2022-2

- 한정된 부품 공급 여력 아래 전방 수요처별 부품 allocation과 수요처별 shortage 강도에 따라 회복 속도에 시차
- SET 중에서는 스마트폰이 +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
- TV, 가전, PC향 부품 shortage도 상반기 중 많이 완화. 서버, 자동차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
- 높아진 부품 가격 레벨로 원가 관리와 제품 Spec 컨트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Apple과 삼성전자 유리
- LG이노텍, 아비코전자,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선호

● 부품 Allocation과 Shortage 강도. 스마트폰의 회복세가 가장 빠르다

누적 재고가 9월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세트 재고 아래 2Q22부터 SoC, DDI, PMIC 등 공급 이슈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SET 업체는 공격적인 출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출하 계획을 3.3억대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Apple은 1Q22부터 공급망 이슈 완화, 올해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중화권 세트 업체 역시 부품 부족 상황에서 타격이 가장 컸던 만큼 이슈 해소와 함께 반전을 꾀하고 있다. 반면 부품 단에서는 여전히 공급망 해소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린다. 결국 한정된 부품 공급 여력 아래 전방 수요처별 부품 allocation과 수요처별 shortage 강도에 따라 회복 속도에 시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SET 중에서는 스마트폰이 +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TV, 가전, PC향 부품 shortage도 상반기 중 많이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서버 및 자동차향은 하반기부터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시나리오 분석 결과

Base Scenario: 2022년 14.7억대(YoY +8%)

Bear: 2022년 14.1억대(YoY +4%)

Bull: 2022년 15.1억대(YoY +11%)

● 선도 업체가 더욱 빛날 수 있는 한 해

부품 공급 부족 사태 완화에도 전반적인 부품 가격대는 높아져 있다. 이를 판가를 전가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원가 관리와 제품 Spec 컨트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중화권 SET보다는 Apple과 삼성전자가 유리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갤럭시 S22(2월), 아이폰SE3(3월), 갤럭시 폴더블(7월), 아이폰14(9월)의 가격 정책도 중요한 대목이다. 당사는 LG이노텍, 아비코전자, KH바텍, 파인테크닉스를 선호한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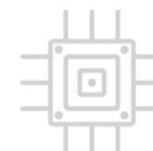
Chapter 1	경제 전망	4
Chapter 2	시나리오 분석, Summary	17
Chapter 3	제조사별 영향 분석	31
Chapter 4	지역별 영향 분석	49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Chapter 1

Macro: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산다는 것



‘22년 매크로 3 Factor & Revision: 1) 역 유동성, 2) 리오프, 3) 리스크’s

Factor 1.

(더 빨라진)
역 유동성 환경
: Fed는 정상화 행보
EM은 건전화 행보

- 작년 3월부터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은 꺾이기 시작
- Fed는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연내 4~5회) → “역 유동성” 환경은 기존 전망 보다 빠르고 강함
- 한국은행도 1월 인상 이후 연내 추가 1~2회 인상 예상(연말 1.75%), 내년에도 2회(50bp) 인상 계획
- 대출 규제 등 과도한 레버리지 발행을 억제하는 조치를 병행

- 대면 경제와 소비(서비스)
- 재정 지원, 자산효과 등 소비 여력도 마련
- 상품 수요/출하 peak-out에도 제조업 재고를 확충하는 수요 필요 (Re-stocking)

Factor 2.

소비와
Re-stocking 수요
: 소비 여력과
적정 재고 확충 필요

Factor 3.

수요의 법칙
: P ↑ 이면 D ↓
: 공급망 인플레이션,
물류/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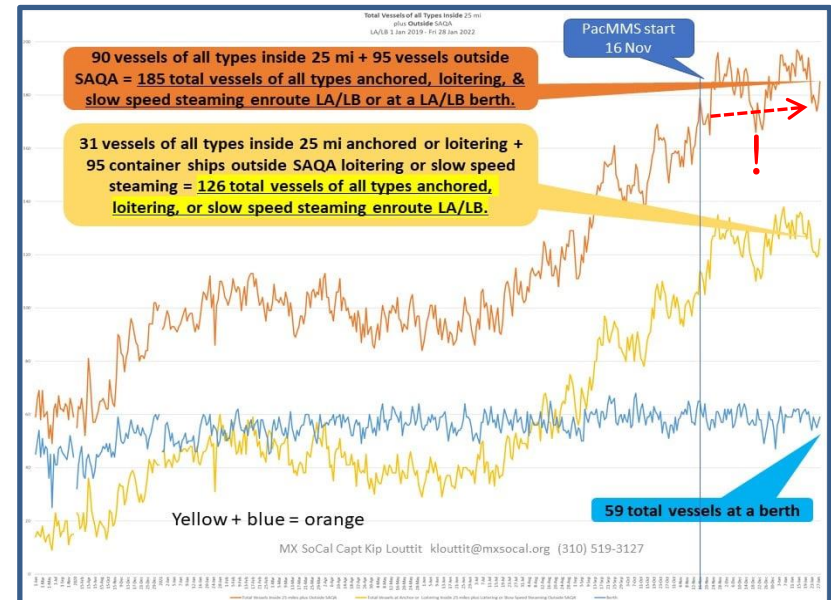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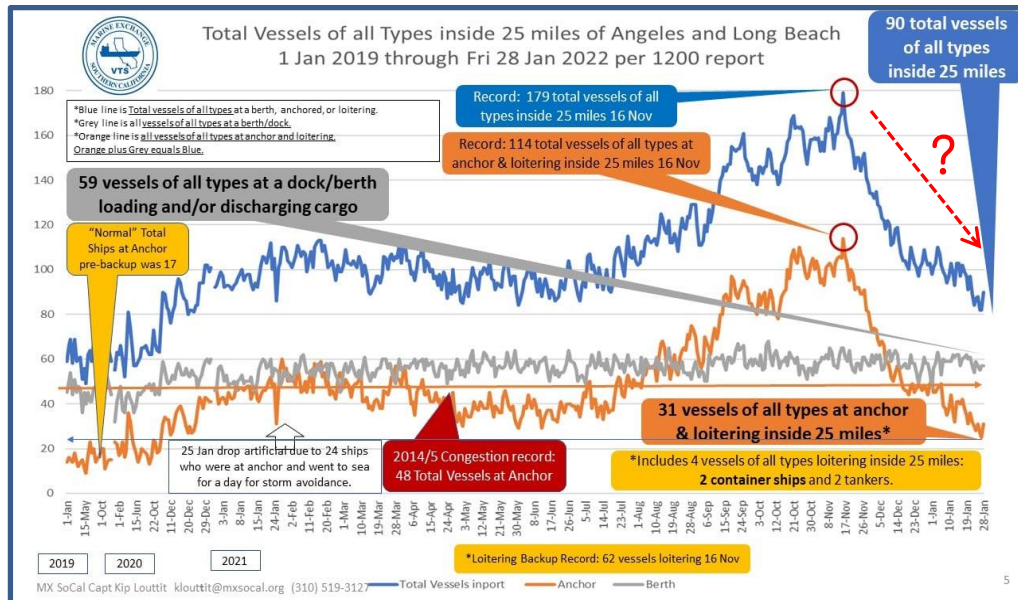
- a.k.a. 수요는 있고, 공급이 없다
- 이 수요는 코로나 이후의 pent-up 수요와는 달리 덜 강한 수요
- Risk 1. 물류 지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요 자체가 빠질 가능성
- Risk 2.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 연말연초가 분수령이 될 것 → **공급망 이슈는 1Q에도 계속 되는 재료**

기존 전망에서
2022년 현재
Macro를
Risky하게
봐야 하는 상황

[인플레이션]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라는 기존 전망/기대가 미충족

- 공급망 이슈 완화라는 기존 전망이 무색하게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Case 1. 테슬라 4Q21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도 주가가 11% 밀린 배경은 Supply Chain 악화를 언급한 가이던스
 - Case 2. 유가, 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WTI 기준 90달러 상회
 - Case 3. LA 롱비치 항구 하역 대기 선박 수 꾸준히 감소? **No! 항구 측의 거리 유지 조치 이후 통계적 착시가 나타난 결과**
- 병목 현상은 물류 정체 & 물류 비용 상승으로 귀결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 축으로써 건재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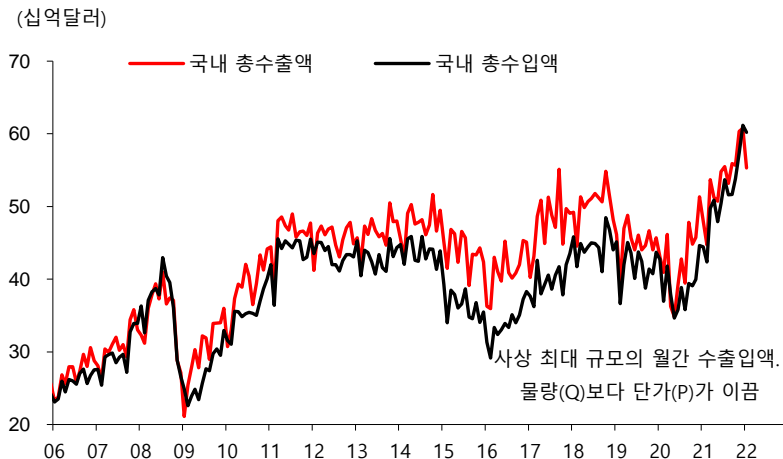
LA 롱비치 항구의 대기 선박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통계적 착시. 항구 측이 선박 당 일정 간격 유지하는 조치를 해 기존 25마일 이내 선박 수가 감소한 것일 뿐



[인플레이션] 공급망 이슈가 한국의 무역수지(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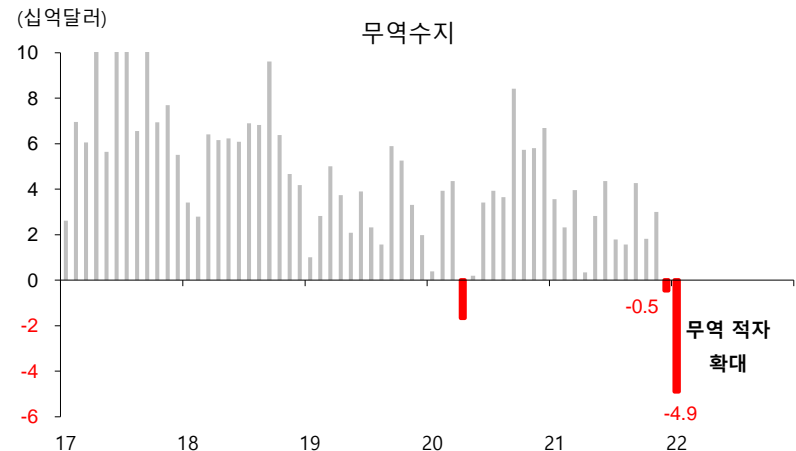
- 최근 한국 수출입은 사상 최고 수준의 월간 수출입액 기록을 이어감 → 물량(Q)보다 단가(P) 상승이 주도
 - 2020년 12월 대비 2021년 12월 수출/입 물량은 각각 +0.8%, +4.0% 증가에 불가
 - 반면 같은 기간 수출/입 단가 상승은 각각 +17.4%, +31.8%에 달함 →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기인
- ‘원인 분석’은 공급망 이슈+원자재 가격 상승, ‘향후 전망’은 정상화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 해야 할 것
 - 이러한 공급망 이슈+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직접적 영향 → 전례 없던 무역적자폭(1월 49억 달러)
 - 앞서 본 LA 롬비치 항구 상황이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소식 등은 **기존 전망 대비 공급망 정상화는 시간을 더 두고 볼 일**

국내 수출입 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연월 갱신하고 있는 상황. Q보다 P에 의해 견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SK증권

이례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 경제에서 ‘매출(수출)<비용(수입)’이어서 역마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SK증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다는 것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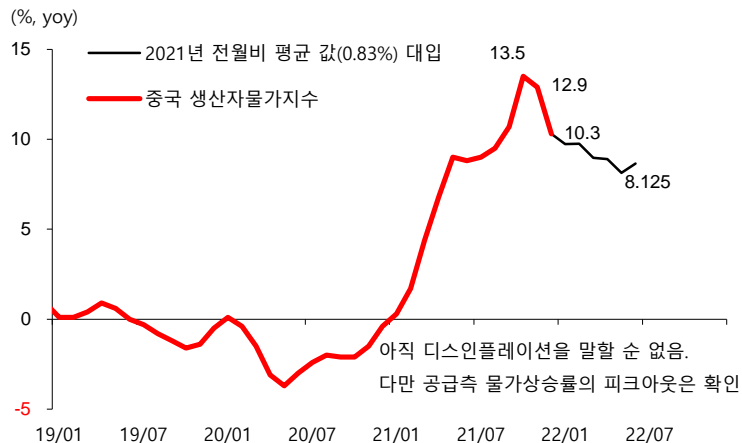
● 글로벌 인플레이션 체인(GICs)의 첫 단추인 중국 PPI가 Peak-out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 중국의 생산자물가(PPI) → Black box →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구조
- 중국 PPI의 추정은 작년 10월 13.5% 고점 이후 올해 상반기 High-single로 둔화되는 경로

● 무엇보다 공급 인플레이션을 가장 경계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 PPI 궤적의 둔화는 불행 중 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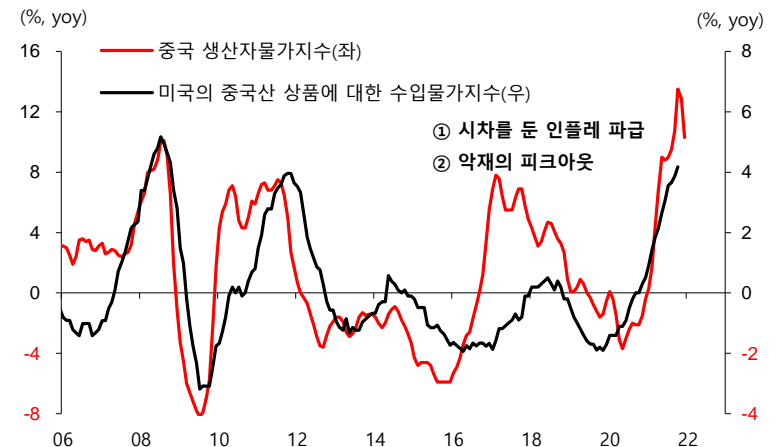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다는 신호는 비용 부담 경감, 물류 개선 기대 측면에서 긍정적 해석 가능
- 글로벌 인플레이션 체인(GICs)에서 Black box 구간의 불확실한 효과, 공급측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도 수요측(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도 작지 않다는 점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이유

글로벌 인플레이션 체인(GIC)의 시작점인 중국 PPI, 향후 궤적은 high-single로 둔화



자료: Bloomberg, SK증권

아직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말할 순 없지만 중국 PPI 궤적의 둔화 전망은 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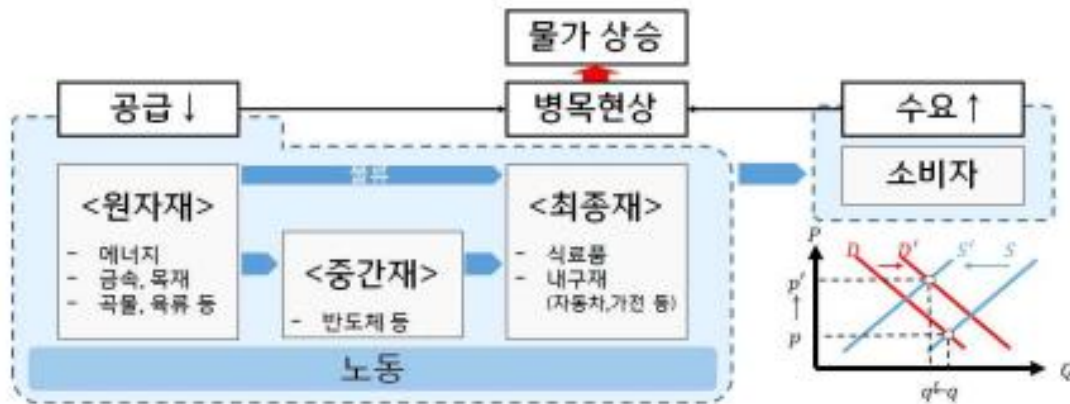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증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산다는 것

- [공급 요인] ESG와 각종 지정학적 이슈,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유발된 수급 불일치(pent-up 수요)생산 지연)
 - 2021년 전세계 핵심 추진 과제였던 탄소 중립, 탄소국경조정세, ESG 평가 등은 '비효율'이 내재된데다가 추가 비용 부담을 발생시켜 과거와는 다른 인플레이션 환경의 한 축이 됨
 - 호주의 대중국 석탄 공급 중단,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중된 천연가스 급등 등 지정학적 이슈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한 축
 -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서 시작된 공급망 이슈 → 2022년 현재에도 완화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지속
- [수요 요인] 각국 정부의 현금 지원 이후 늘어난 가계 구매 여력. 서비스 물가의 견조한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
 -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등장한 Fed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단상: 수요와 공급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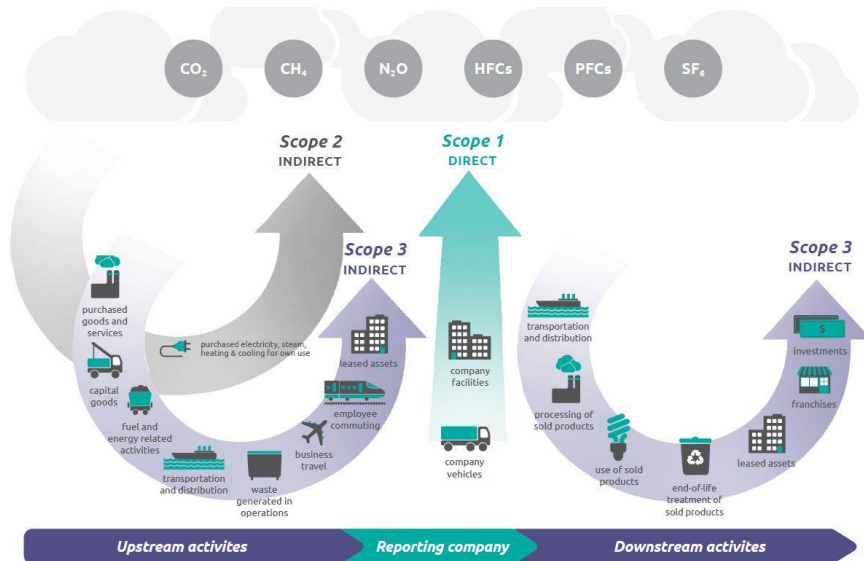


	최근 물가상승 원인	상승 압력	물가
수요	수요증가(경기회복)	완화	↗
	공급망 관리 비용 증가	완화	↗
	노동공급 부족	완화	↗
공급	유가 상승	완화	↗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확대	↗
	자산가격 상승	지속	↗

[인플레이션] ESG, 교역의 비관세 장벽이자 비용 상승 불가피

- 향후 ESG는 글로벌 교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美SEC의 ESG 공시 의무화와 EU 공급사슬망 실사 법안 주목해야 함
 - 올해 미국 SEC는 ESG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범위를 Scope 3(공급사슬망 전후방을 포괄)까지 확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는 곧 미국 상장 기업들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 EU의 경우 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due diligence)를 강제하는 법안을 수립하고 있음. 개도국에 위치한 개별 기업이 EU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라 점에서 교역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 SEC는 상장기업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



자료: 언론종합, SK증권

EU의 ESG 규정 관계도, EU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 강화는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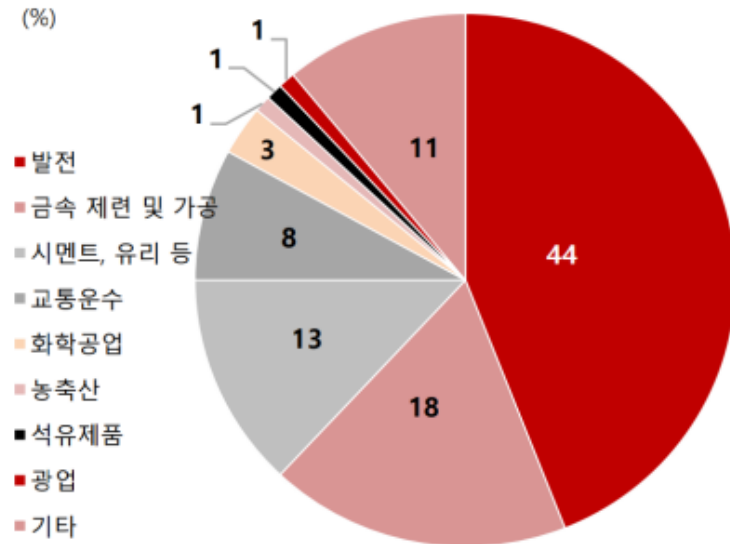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SK증권

[인플레이션] 중국의 정책 변화도 인플레이션 시대를 초래하는 요인

- 중국이 탈탄소/공동부유/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할수록 글로벌 공급사슬망에 부과되는 물가 상승 압력은 가중될 전망
 - '22년 중국 정부는 향후 금융, 비철금속, 건축자재 업종이 전국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것이라 예고. '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중국이 비철금속 생산을 줄임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던 점은 고려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민 소득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내 생산기업들의 인건비 압력 또한 상승할 전망. 중국이 디디추싱, 메이탄 등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권리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

2017년 중국 산업별 탄소 배출 비중, 금속 제련이 2 위



자료: China Emission Accounts & Datasets, SK증권

중국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익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인건비 상승 예상

交通运输部 中央宣传部 中央网信办 国家发展改革委 公安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中华全国总工会关于加强交通运输新业态从业人员权益保障工作的意见

字号: 【大】 【中】 【小】 【打印】

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加强交通运输新业态从业人员权益保障工作，推动交通运输新业态规范健康持续高质量发展，更好服务广大人民群众，提出如下意见。

一、总体要求

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全面贯彻党的十九大和十九届二中、三中、四中、五中全会精神，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立足新发展阶段，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服务构建新发展格局，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坚持系统观念，统筹发展和安全，紧紧围绕解决交通运输新业态从业人员最关心最直接最现实的权益保障问题，注重标本兼治，完善治理体系，着力规范交通运输新业态企业经营行为，维护公平竞争市场秩序，健全完善从业人员权益保障制度，营造良好从业就业环境，全力维护从业人员合法权益，促进交通运输新业态规范健康持续高质量发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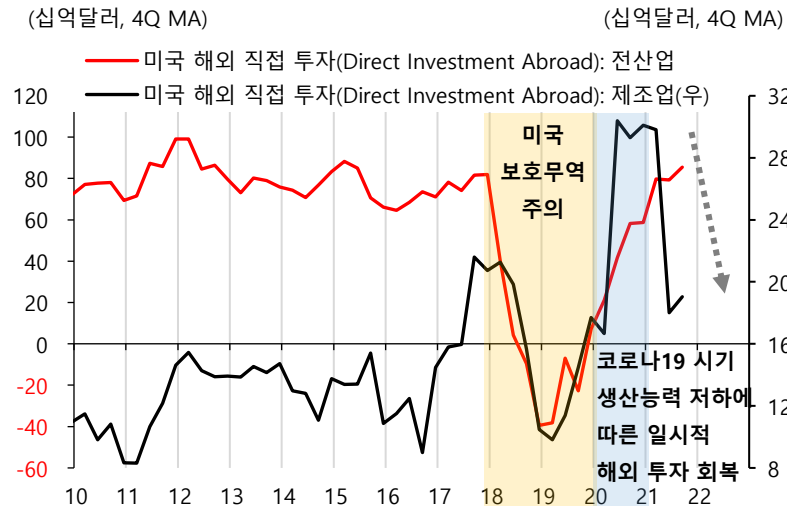
中国 交通운수부 등 8개 부처는 차량공유 및 딜리버리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작년 디디추싱, 징둥닷컴 등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기업들이 지켜야되는 노동자 권익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자료: 중국 교통운수부,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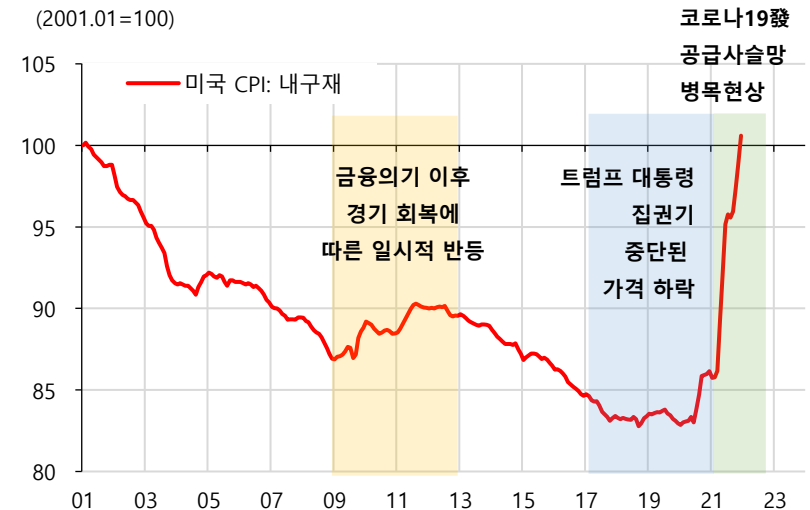
- 미-중 갈등으로 세계 무역은 통합되고 효율적인 하나의 글로벌 시장에서 파편화되고 자율적인 로컬 시장으로 변화할 예정
 -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철저한 분업 논리로 연결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파편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 지난 20년간 꾸준히 하락하던 내구재 가격이 2017~2019 기간 중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공급사슬망 분리에 따른 영향을 시사
 - 미국의 대외투자 역시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 Offshoring에서 Reshoring으로 변화한 경영 트렌드를 시사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대외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



자료: CEIC, SK증권

미국 내구재 가격 하락세는 Offshoring이 축소됨에 따라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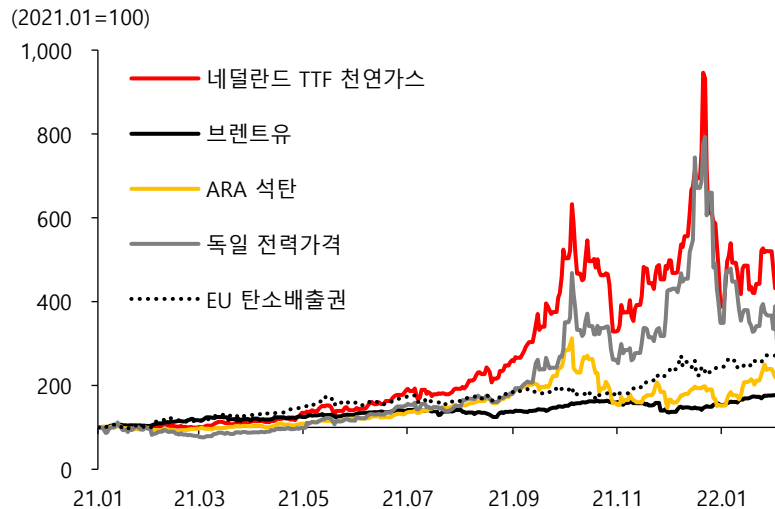


자료: CEIC, SK증권

[지정학] 에너지 가격 폭등의 뇌관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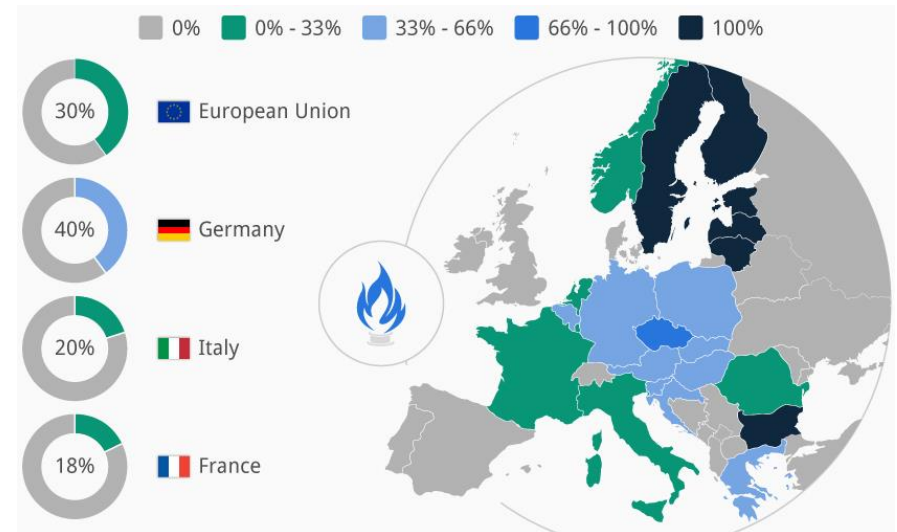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NATO와 러시아 간의 대결, 다시금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변수
 - 러시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對유럽 에너지 공급망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개입을 저지
 - 유럽 전체(非EU 국가 포함)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 석탄 수입의 약 40%, 원유 수입의 약 25%를 러시아에 의존
 - 에너지 공급난으로 인해 유럽 천연가스(Dutch TTF) 가격 장중 180.3유로까지 상승(12/21)까지 올라 전년 말 대비 840% 상승

유럽 주요 에너지 가격,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대립으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자료: Bloomberg, SK증권

유럽 국가별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비중, 독일의 경우 러시아 천연가스 비중이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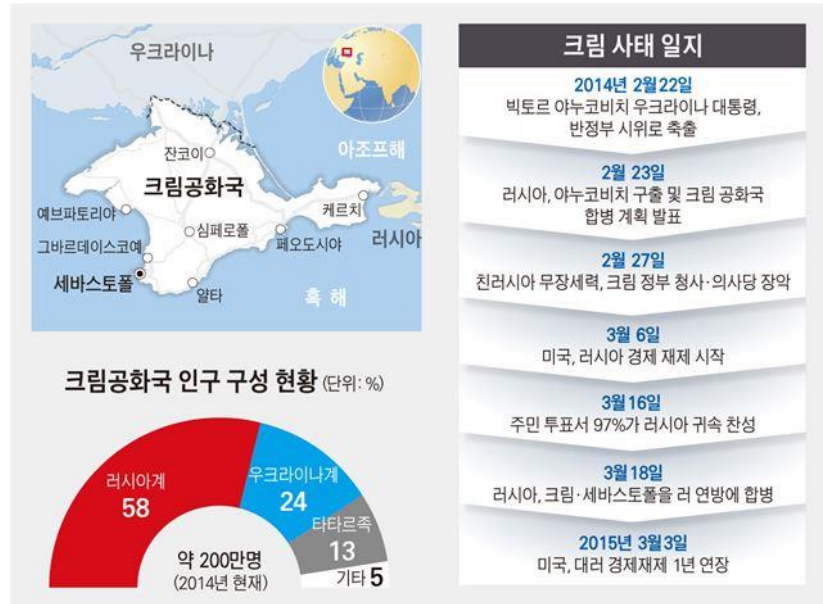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SK증권

[지정학]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

●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다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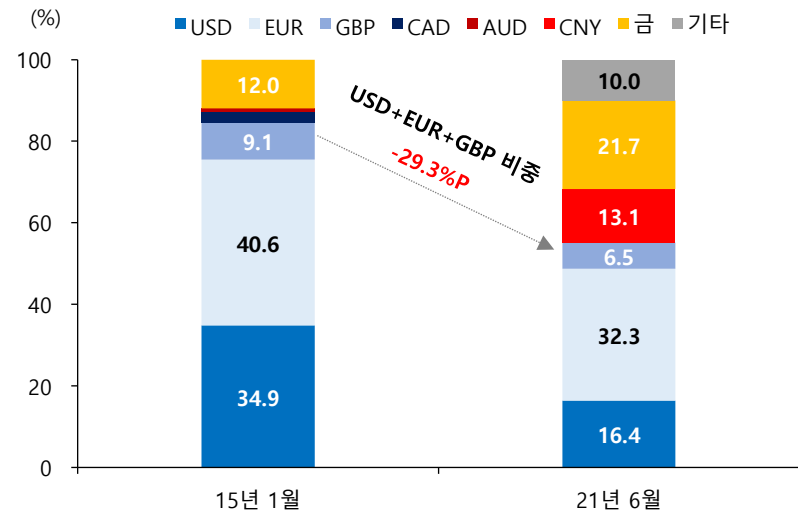
- 러시아, 2014년 발발한 크림반도 사태 당시 서방의 제재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후퇴, GDP의 20~21%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서방의 금융/교역 제재에 맞서기 위해 크게 3가지 전략을 사용 1) 외화 자산 다변화 및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 낮추기, 2) 중국과의 외교적/경제적 관계 강화, 3) 대외 부채 축소
-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 중. 러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문제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락을 일으키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

2014년 크림 위기 당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를 단행



자료: 언론종합, SK증권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유럽 통화 자산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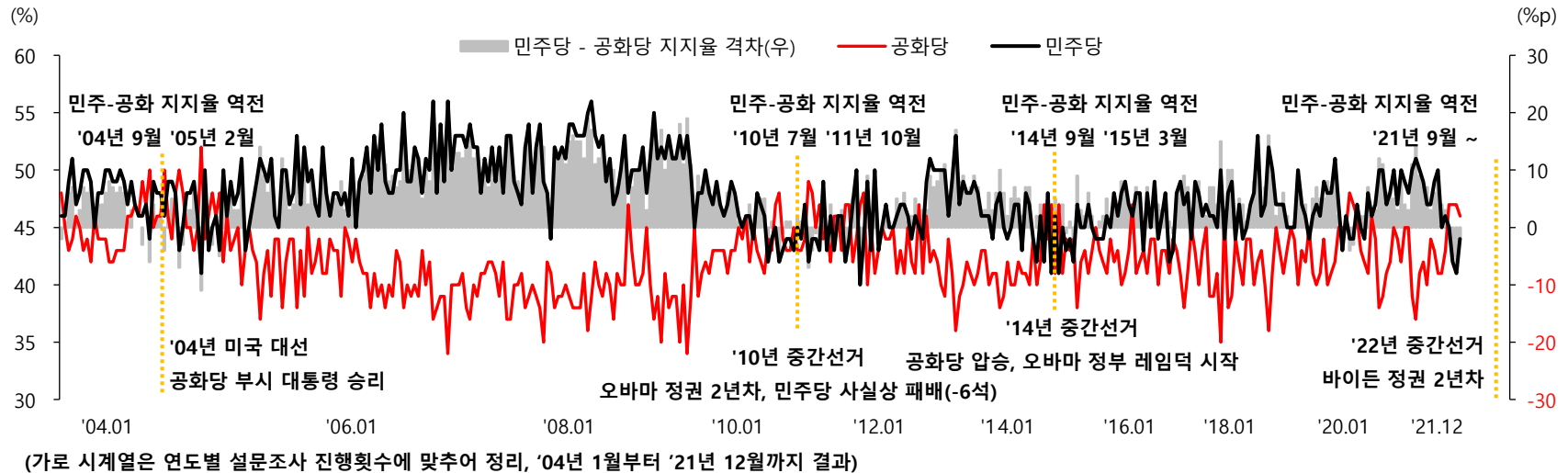


자료: Bank of Russia, SK증권

[지정학] 바이든 행정부의 첫번째 성적표, '22년 중간선거

- 공화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던 2014년 중간선거 이래 가장 낮은 민주당 지지율
 -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공화당 대비 우위를 점하던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은 작년 9월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4달 연속 공화당을 하회하고 있음. 이렇듯 장기간 지지율에서 뒤쳐진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
 - 과거 2014년 11월 치뤄진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은 역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왔으며, 보유 중이던 상원 의석 중 9석을 잃어 공화당에게 상원 과반을 빼앗긴 바 있음
 - 11월 중간선거는 상원 의원 100석 중 34석, 하원 의원 전체를 놓고 진행되는 거대한 정치 이벤트. 현재 인플레이션이 행정부와 정당 지지율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물가 대응에 최선을 다할 전망

미국의 정당 지지도, 민주 - 공화당간의 지지율 역전이 발생할 때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



[지정학] 중국의 20차 당대회와 공동부유(共同富裕)

● 중국, 시진핑 3 연임을 확정하는 제20차 당대회 개최 임박, 대내외 리스크 관리 나서

- 10월 예정되어 있는 중국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3 연임 확정과 더불어 그 이하 고위관료들의 인사가 결정될 자리
- 리커창 총리(공식 서열 2위) 등 다수의 고위 관료가 '23년 14기 전인대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음. 해당 지위를 누가 대체하는지를 통해 향후 중국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플랫폼 반독점 규제, 탈탄소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산업 육성 및 공급사슬망 내재화, 부동산 등 산업의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한 공동부유 실현 등. 모두 물가 상승세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7인의 상무위원 중 임기 만료/은퇴연령인 칠상팔하(七上八下)*에 걸리는 인물이 3명



习近平
시진핑 주석
사실상
연임 확정



李克强
리커창 총리
67세('23년 전인대 기준)
임기만료



栗战书
리잔수 상무위원장
72세
은퇴연령



汪洋
왕양 정협 주석
67세



王沪宁
왕후닝 상무위원
67세



赵乐际
자오러지 감사위 서기
65세



韩正
한정 상무부총리
68세
은퇴연령

자료: 신화통신, 언론종합, SK증권

*칠상팔하: 당대회 기준 67세까지 상무위원 가능, 68세 이상은 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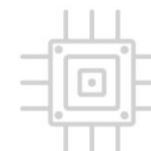
작년 한해 정책 수혜주와 피해주의 성적은 극명하게 갈림,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



자료: Bloomberg, SK증권

Chapter 2

시나리오 분석, Summary



2021년 13.6억대 YoY +5% 기록. 기회의 땅을 확인한 인도와 중동아프리카

Industry Analysis

- 2021년 스마트폰 Sell-in 13.6억대(YoY+5%) 기록. 2020년 낮은 기저에도 부품 공급 차질 이슈로 제한적인 성장
- 중국(YoY -2%)과 동유럽(YoY -2%)은 감소한 반면 인도(YoY +12%)와 중동아프리카(YoY +15%)은 두 자릿수대 성장세 시현
중국 여전히 스마트폰 최대 수요처이나 포화된 시장, Huawei의 영향력 축소, 부품 공급 부족 타격이 컸던 OVX로 인해 전년에 이어 또 한번 역성장. 반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50%에 불과한 인도 시장은 SET 업체의 적극적인 판매 프로모션 정책에 힘입어 크게 성장
- 2022년 스마트폰 Sell-in 14.7억대(YoY +8%)으로 완전한 성장세. 1H22 중 SoC, CIS, DDI 수급 서서히 완화 전망. 인도와 소비 여력을 갖춘 주요 선진시장에서 빠른 회복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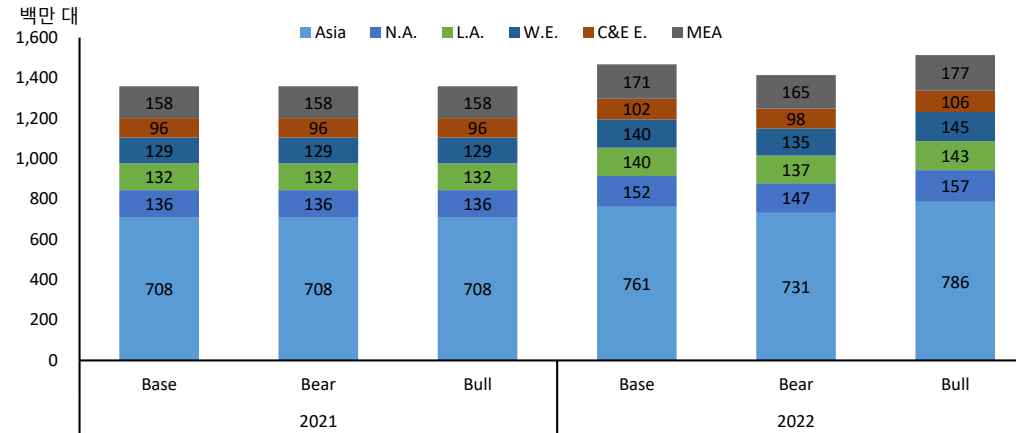
지역별 분기 및 연간 출하량 전망 비교

By Region	2021			2022			2021 YoY			2022 YoY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Asia	708	708	708	761	731	786	3%	3%	3%	8%	3%	11%
China	312	312	312	334	321	344	-2%	-2%	-2%	7%	3%	10%
India	163	163	163	183	172	189	12%	12%	12%	12%	6%	16%
Others	233	233	233	245	237	253	5%	5%	5%	5%	2%	8%
N.A.	136	136	136	152	147	157	5%	5%	5%	12%	8%	15%
L.A.	132	132	132	140	137	143	3%	3%	3%	7%	4%	9%
W.E.	129	129	129	140	135	145	6%	6%	6%	9%	5%	12%
C&E E.	96	96	96	102	98	106	-2%	-2%	-2%	7%	3%	10%
MEA	158	158	158	171	165	177	15%	15%	15%	8%	4%	12%
Global	1,358	1,358	1,358	1,467	1,413	1,513	5%	5%	5%	8%	4%	11%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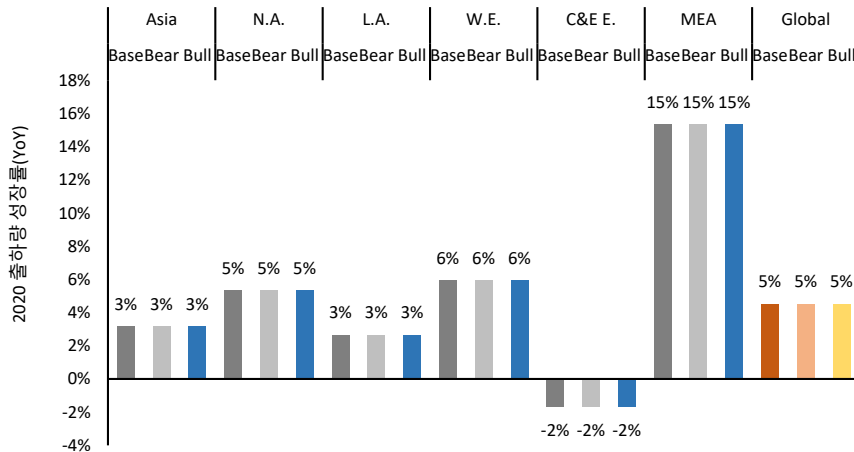
Key Charts by Scenario

시나리오별 지역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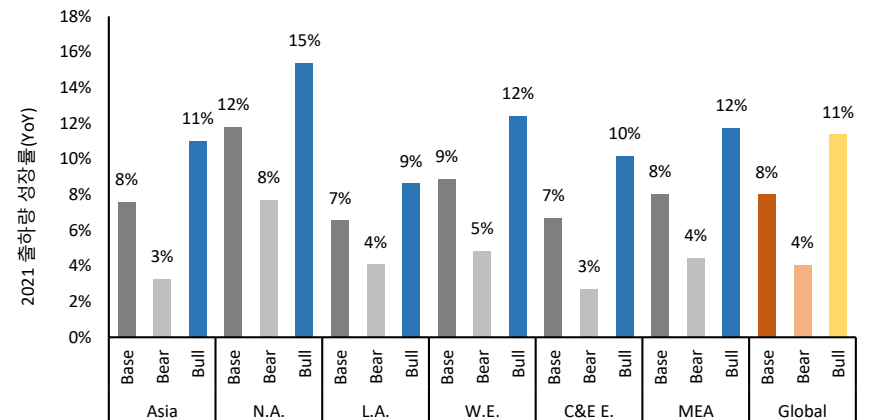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2021년 지역별 출하량 성장률



자료: SK증권

2022년 지역별 출하량 성장률



자료: SK증권

SET와 부품 간의 괴리,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 2022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3.3억대 목표. 갤럭시 S22 판매에 대한 자신과 ODM 물량 확대가 주요 전략. Apple 역시 1H22 아이폰13 및 아이폰SE3 효과와 더불어 2H22 아이폰14 시리즈 흥행에 자신감. 부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달 후순위였던 중화권 SET 업체 역시 공급망 이슈 해소시 출하량을 늘릴 계획
- SET 업체들의 공격적인 눈높이 대비 부품 단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 결국 한정된 부품 공급 여력 아래 전방 수요처별 부품 allocation과 수요처별 shortage 강도에 따라 회복 속도에 시차.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 가장 빠를 듯
- SET와 부품 간의 간극이 좁혀지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은 8%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 예상. 상대적으로 공급망 관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Apple과 삼성전자 출하 성장은 시장 대비 Outperform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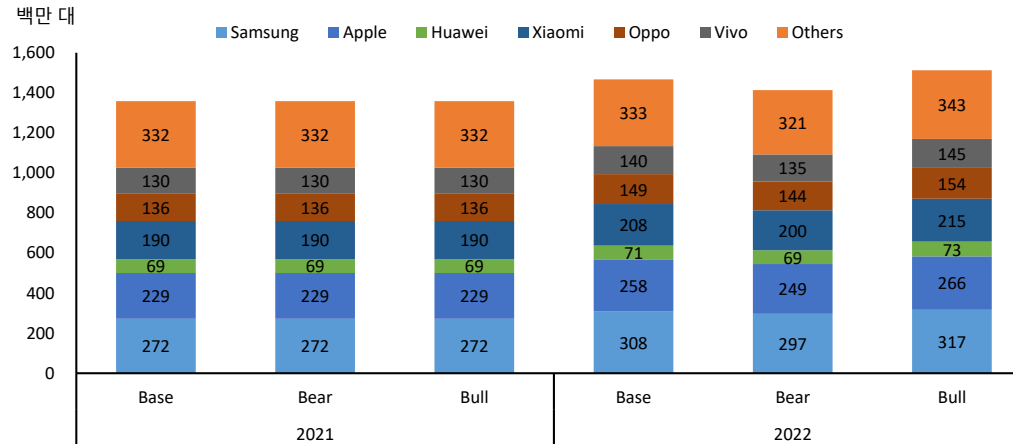
제조사별 분기 및 연간 출하량 전망 비교

By Vendor	2021			2022			2021 YoY			2022 YoY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Samsung	272	272	272	308	297	317	7%	7%	7%	13%	9%	17%
Apple	229	229	229	258	249	266	11%	11%	11%	13%	9%	16%
Huawei	69	69	69	71	69	73	-63%	-63%	-63%	2%	-1%	6%
Xiaomi	190	190	190	208	200	215	31%	31%	31%	9%	5%	13%
Oppo	136	136	136	149	144	154	19%	19%	19%	10%	6%	13%
Vivo	130	130	130	140	135	145	17%	17%	17%	7%	3%	11%
Others	332	332	332	333	321	343	18%	18%	18%	0%	-3%	3%
Global	1,358	1,358	1,358	1,467	1,413	1,513	5%	5%	5%	8%	4%	11%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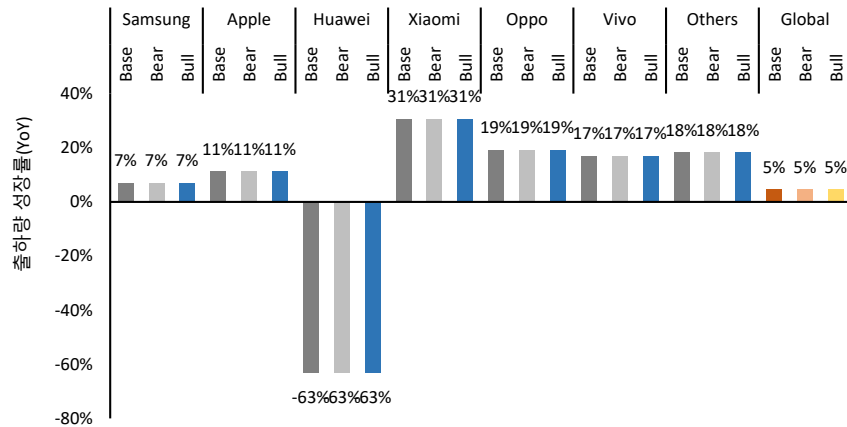
Key Charts by Scenario

시나리오별 제조사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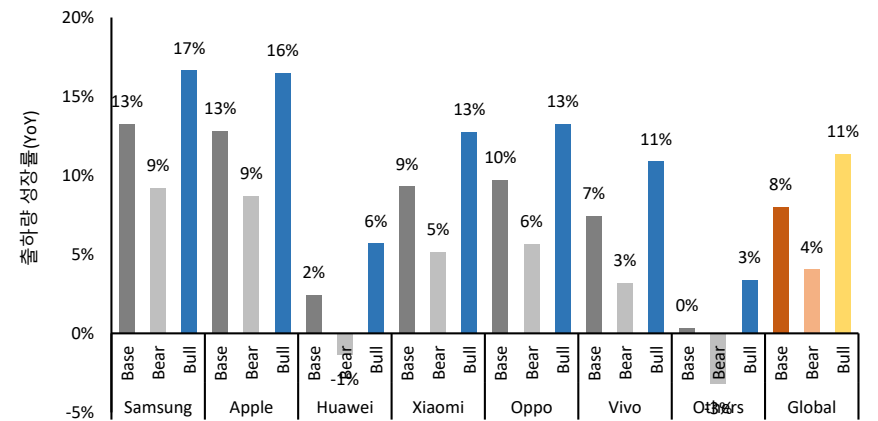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2021년 제조사 출하량 성장률 (YoY 기준)



자료: SK증권

2022년 제조사 출하량 성장률 (YoY 기준)



자료: SK증권

1Q22, 공급망 이슈 여파 지속. 3Q22 본격 반등

- 1Q22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3억대로 QoQ -9%, YoY -6% 전망
- 예상보다 길어지는 부품 공급 부족 이슈 여파로 1Q22까지 감소. 2Q22부터 완전한 회복세 이후 3Q22 본격 반등
- CIS, SoC, DDI 등 수급 상황이 1H22 중 점차 완화. 스마트폰을 포함한 TV, PC, 가전 등 주요 SET는 하반기 회복이 기대되는 반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하반기까지 수급 불균형 상태 지속 예상
- BOM Cost 상승으로 SET 가격 인상 여부가 출하량의 변수. 갤럭시 S22, 아이폰SE3, 새로운 폴더블 제품, 아이폰14 출고가 주목

분기별 및 연간 출하량 전망 시나리오별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Total Shipment												
	Base	352	314	327	365	331	343	376	417	1,413	1,358	1,467
	Bear	352	314	327	365	322	333	362	397	1,413	1,358	1,413
	Bull	352	314	327	365	338	352	388	434	1,413	1,358	1,513
QoQ %												
	Base	-6%	-11%	4%	11%	-9%	4%	9%	11%			
	Bear	-6%	-11%	4%	11%	-12%	4%	9%	10%			
	Bull	-6%	-11%	4%	11%	-7%	4%	10%	12%			
YoY %												
	Base	28%	11%	-11%	-3%	-6%	9%	15%	14%	-1%	5%	8%
	Bear	28%	11%	-11%	-3%	-9%	6%	10%	9%	-1%	5%	4%
	Bull	28%	11%	-11%	-3%	-4%	12%	19%	19%	-1%	5%	11%

자료: SK증권

Component	Application	2021년	2022년	2023년
SoC - 5G	Smartphone	●○○	○○○	○○○
SoC - 4G	Smartphone	●●○	●○○	○○○
RF FEM	Smartphone	●●○	●●○	○○○
CIS 12MP 이상	Smartphone	●○○	○○○	○○○
CIS 12MP 미만	Smartphone / Auto	●●○	●○○	○○○
DDI - LCD	Smartphone / TV / PC	●○○	●○○	○○○
DDI - OLED	Smartphone / TV / PC	●●○	●○○	○○○
PMIC - Server	Server	●●●	●●○	●○○
PMIC - Mobile	Smartphone	●●○	●○○	○○○
PMIC - PC	PC	●○○	●○○	○○○
PKG Substrate - Server/PC	Server / PC	●●●	●●○	●○○
PKG Substrate - mobile/Auto	Smartphone / Auto	●●○	●○○	●○○
MCU	Auto	●●●	●○○	●○○

SET별 출하량

(억대)	TV	스마트폰	PC	자동차(판매)
2021년	2.2	13.6	3.4	0.8
2022년	2.2	14.7	3.2	0.9
2023년	2.2	15.3	3.2	0.9

SET별 출하 성장률

(YoY)	TV	스마트폰	PC	자동차(판매)
2021년	-2.8%	3.6%	9.7%	4.3%
2022년	-1.6%	8.0%	-7.1%	6.0%
2023년	2.0%	4.0%	1.6%	9.2%

SET별 부품 Shortage 강도

	TV	스마트폰	PC	자동차(판매)
2021년	●○○	●●○	●●○	●●●
2022년	●○○	●○○	●○○	●●○
2023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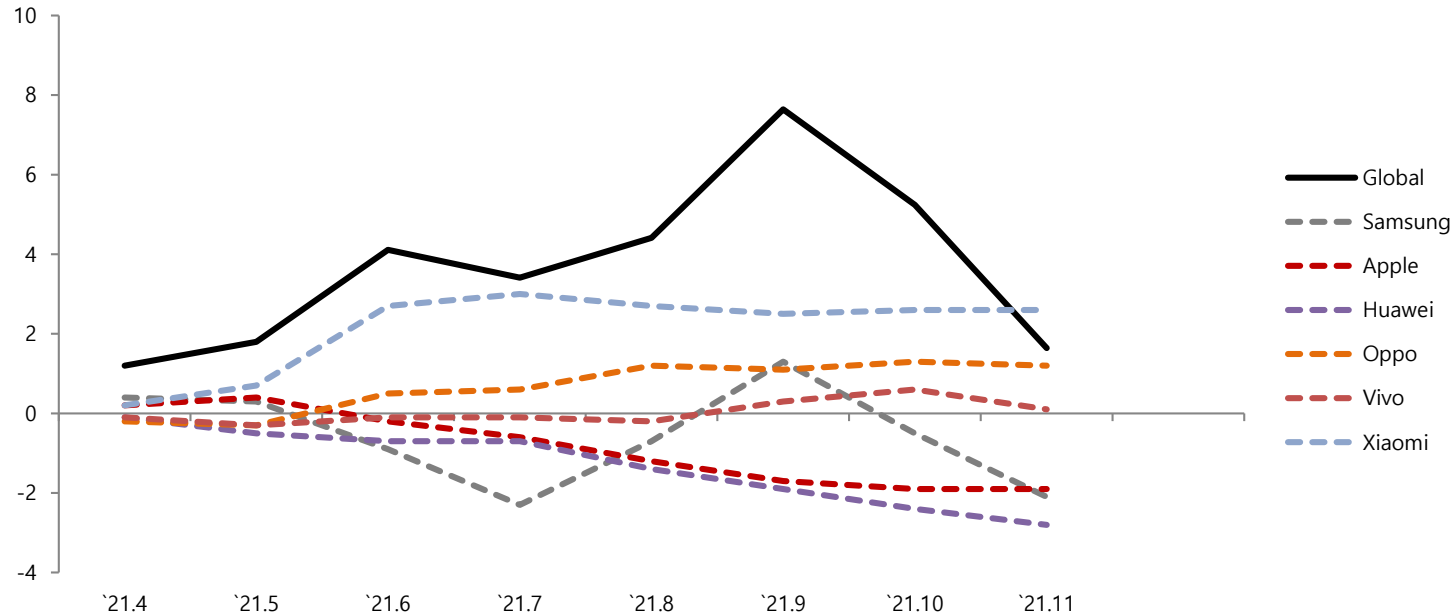
1H22까지 주요 부품 공급
부족 상황 지속

SoC, CIS, DDI는 상반기 중
수급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 TV, 스마트폰, PC향
SET 영향도 완화 기대

반면 RF FEM, PMIC, PKG
Substrate, MCU는 하반기
중 완화

Highend PKG Substrate로
분류되는 FC-BGA의 경우
2022년까지도 Tight한 수급
으로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
으로 예상. 자동차향 MCU
역시 연말까지 수요 우위 상
황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21년 2Q21(부품 공급 부족) 이후 세트 누적 재고 추이



2Q21 부품 공급 부족 발생 이후 수요가 생산량보다 높은 상황 지속. 누적 재고는 9월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으며 10월 인도 축제, 11월 애플의 중화향 강한 프로모션, 11-12월 선진시장 소비 시즌을 통해 판매 속도가 출하 속도를 추월. 물론 빠른 재고 소진 대비 부품 부족에 따른 출하가 속도가 제한되면서 연말 성수기 시즌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부족

1H22부터 SoC, CIS, DDI의 공급 부족이 서서히 완화. 내년 1Q22까지 공급 부족 영향은 있겠으나 2Q22부터 관련 우려는 해소될 전망. 내년 출하량은 YoY 각각 1Q22 -9%, 2Q22 +4%, 3Q22 +9%, 4Q22 +11% 추정

주가センチ먼트는 3-4월부터 선반영 회복세 전망. 3Q22부터 주요 지표 강한 반등을 예상하기 때문. 다만, 높아진 부품 가격, 물류비 등 원가 단에서의 변수로 제품의 ASP 정책 확인 필요

삼성전자: 공격적인 출하 목표, 시선은 S22와 ODM으로

Industry Analysis

- 4분기 출하량은 6,900만대로 전분기 대비 Flat한 수준을 기록하며 통상 성수기 대비 부진. 주요 비메모리 부품 공급 부족 영향 지속. 반면 폴더블폰은 지난해 710만대를 출하하며 기대치 충족(700-750만대 Band)
- 2월9일(미국 현지 시간) 갤럭시 S22 언팩 행사 예정. S20 & S21 출하량이 2천만대 초중반에 머물렀던 것 대비 S22는 4천만대 이상의 공격적인 출하 목표. 부품 수급 이슈에 따른 일부 모델의 출시 지연 가능성, 부품 원가 및 물류비 상승에 따라 제품 ASP 정책 방향, 4나노 공정의 Exynos 2200 수율 및 성능 이슈 등으로 공격적인 출하 가시적 확보까지는 시간이 필요
- ODM 물량도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 기존 연간 물량의 10%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최대 30%까지 늘어날 가능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shipment(mn unit)	1Q21	2Q21	3Q21	4Q21	1Q22E	2Q22E	3Q22E	4Q22E
Samsung	77	57	69	69	75	69	79	86
Apple	57	46	46	80	55	51	62	89
Huawei(Honor 포함)	17	13	20	20	16	17	18	20
Xiaomi	49	53	44	45	47	48	55	59
Oppo	38	33	34	31	34	36	39	41
Vivo	37	32	34	28	32	33	37	38
Others	78	81	81	91	72	90	86	84
Global	352	314	327	365	331	343	376	417

shipment	2019	2020	2021	2022E	YoY
Samsung	295	254	272	308	13%
Apple	197	206	229	258	13%
Huawei(Honor 포함)	241	188	69	71	2%
Xiaomi	125	146	190	208	9%
Oppo	115	114	136	149	10%
Vivo	107	112	130	140	7%
Others	333	280	332	333	0%
Global	1,413	1,300	1,358	1,467	8%

자료 : SA, SK증권

Apple: 부품 부족 속에서도 빛나는 자신감

- 아이폰13 출시해 7,970만대 출하량 기록(vs 아이폰12 출시해 6,310만대)하며 흥행에 성공. 아이폰12 출시일 보정(+1M)에도 500만대 이상 전작 대비 상회. 공급 단에서는 Tight한 공급망 관리로 부품 부족 여파를 최소화했으며 수요 단에서는 출고가 인하 및 중국 시장에서의 강한 수요에 기인
- 1H22에도 공급망 이슈 완화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침. 아이폰13 이연 수요와 3월 아이폰SE3 출시로 상반기 계절성 크게 완화. 2H22에는 아이폰14의 대대적인 폼팩터 변화(카메라 화소수 상향(48MP), Notch 축소 등)로 13의 흥행을 이어갈 전망
- 향후 관전 포인트는 아이폰SE3(3월)와 아이폰14(9월) 출고가 상향 여부

Apple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shipment(mn unit)	1Q21	2Q21	3Q21	4Q21	1Q22E	2Q22E	3Q22E	4Q22E
Samsung	77	57	69	69	75	69	79	86
Apple	57	46	46	80	55	51	62	89
Huawei(Honor 포함)	17	13	20	20	16	17	18	20
Xiaomi	49	53	44	45	47	48	55	59
Oppo	38	33	34	31	34	36	39	41
Vivo	37	32	34	28	32	33	37	38
Others	78	81	81	91	72	90	86	84
Global	352	314	327	365	331	343	376	417

shipment	2019	2020	2021	2022E	YoY
Samsung	295	254	272	308	13%
Apple	197	206	229	258	13%
Huawei(Honor 포함)	241	188	69	71	2%
Xiaomi	125	146	190	208	9%
Oppo	115	114	136	149	10%
Vivo	107	112	130	140	7%
Others	333	280	332	333	0%
Global	1,413	1,300	1,358	1,467	8%

자료 : SA, SK증권

중화권 제조사: 상대적으로 컸던 부품 타격, 스마트폰 사업은 글썽

Industry Analysis

- 중국 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더불어 SoC 같은 핵심 부품 조달에서 중화권 제조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여기에 Apple의 아이폰13 출고가 인하와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4Q21 Oppo, Vivo는 QoQ 감소를 기록. Huawei 중저가 물량은 독립 브랜드인 Honor가 상당 부분을 흡수
- 1Q22까지 부품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지속. 2Q22부터 점진적인 출하 회복세. 그러나 부품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으로 가성비 전략에 부담. 이에 따라 중화권 제조사 역시 ODM 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높음
- 중화권 세트 업체들은 공급망 이슈 완화 이후에도 경쟁 심화, 미중 분쟁 지속, 전통 세트 구조적 침체기 등을 이유로 Management 단에서 깊은 고심. 신성장 사업인 전기차, XR, 로봇 등에 관심을 보이는 중으로 파악

중화권 제조사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shipment(mn unit)	1Q21	2Q21	3Q21	4Q21	1Q22E	2Q22E	3Q22E	4Q22E
Samsung	77	57	69	69	75	69	79	86
Apple	57	46	46	80	55	51	62	89
Huawei(Honor 포함)	17	13	20	20	16	17	18	20
Xiaomi	49	53	44	45	47	48	55	59
Oppo	38	33	34	31	34	36	39	41
Vivo	37	32	34	28	32	33	37	38
Others	78	81	81	91	72	90	86	84
Global	352	314	327	365	331	343	376	417

shipment	2019	2020	2021	2022E	YoY
Samsung	295	254	272	308	13%
Apple	197	206	229	258	13%
Huawei(Honor 포함)	241	188	69	71	2%
Xiaomi	125	146	190	208	9%
Oppo	115	114	136	149	10%
Vivo	107	112	130	140	7%
Others	333	280	332	333	0%
Global	1,413	1,300	1,358	1,46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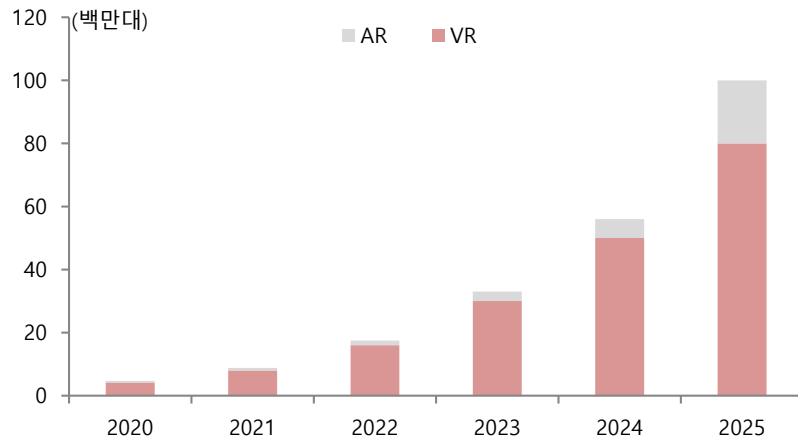
자료 : SA, SK증권

가파르게 커지는 XR, 2025년 1억대/500억달러 시장 형성

Industr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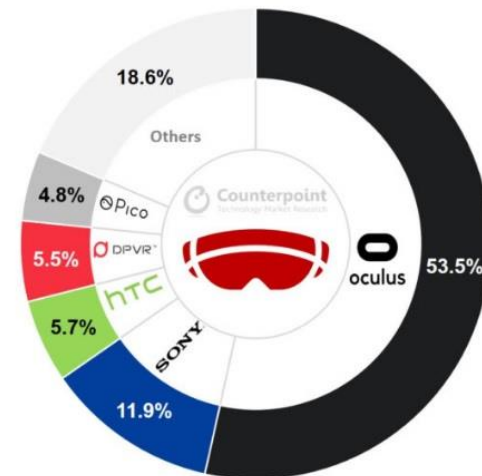
- XR 시장은 2020년 470만대에서 2025년 5,600만대로 급성장. 2023년까지 VR이 XR 기기 시장을 주도, AR 시장은 2024년부터 서서히 개화할 것으로 전망
- VR 시장은 2020년 하반기 출시된 Oculus Quest2가 큰 호응을 얻으며 반전의 계기 마련. Standalone 형태로 해상도(1832 x 1920 per eye)로 FHD를 넘어섰고 120Hz의 주사율과 inside-out tracking 지원. 높아진 사양에도 299\$에 출시되며 전작 대비 100\$ 이하
- 전통 SET 업체 역시 XR 시장에 큰 관심. Apple은 2023년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짐. 사실상 AR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 역할로 시장성 확인과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 무대
- VR 출시 레퍼런스가 있는 삼성전자도 큰 관심. 지난해 미국 XR 전문기업인 디지렌즈에 5,000만달러 투자. 차세대 디바이스로서 폴더블과 함께 로봇, XR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XR(VR, AR) 출하량 전망



자료 : SK증권

2020년 제조사별 XR(VR, AR)기기 M/S



자료 : Counterpoint

XR(VR, AR) 시장 추정

Industry Analysis

(출하량, 백만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VR	4	8	16	30	50	80
AR	1	1	2	3	6	20
Total	5	9	18	33	56	100

(ASP, 달러)						
VR	600	450	450	400	350	250
AR	3,000	3,000	3,000	2,500	2,000	1,500

(시장규모, 십억달러)						
VR	3	4	7	12	18	20
AR	2	2	5	8	12	30
Total	5	6	12	20	30	50

	Oculus Quest	DPVR P1 Pro	Oculus Quest2	Pico NEO 3
Type	Standalone	Standalone	Standalone	Standalone
Tracking	6 DoF (Inside-out)	3 DoF	6 DoF (Inside-out)	6 DoF (Inside-out)
SoC	Qualcomm Snapdragon 835	Qualcomm Snapdragon XR1	Qualcomm Snapdragon XR2	Qualcomm Snapdragon XR2
DRAM	4GB	2GB	6GB	6GB, 8GB
NAND	64GB, 128GB	32GB	64GB, 256GB	256GB
Released	2019.05	2019.07	2020.10	2021.05
Price	399~499\$	349\$	299\$	390\$

Oculus Quest2 2021년 누적 판매량 1,000만대

2022년 하반기 Oculus Quest3, Sony PSVR2 출시가 또 한번의 시장 기폭제

2023년 Apple MR(VR로 구분) 500만대, 2024년 Apple AR 100만대 추정. 2025년 전체 시장 1억대, 500억달러

휴대성과 공간 제약을 극복한 Standalone Type 출시가 주류 형성

Standalone은 자체 SoC와 메모리 탑재 필수적

SoC에서는 Qualcomm이 주도, Memory 사양도 Highend Smartphone에 버금

Apple XR에 시선 집중, 시장의 기폭제이자 AR로 가기 위한 길목

Industry Analysis

- Apple XR 제품 출시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 당초 2022년 연말 출시가 예상되었으나 2023년 상반기 출시에 무게
- 기존 VR 제품과는 다른 형태의 폼팩터와 High-end 부품 탑재가 예상. 안경과 헤드마운트의 중간 사이즈 수준인 고글 형태로 VR과 유사
- Unthered 방식으로 맥북 프로에 사용되는 M1 맥스 칩셋, 8K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13개의 카메라(eye tracking 6개, stereo camera 4개, ToF 3개) 탑재 예상. 출고가는 2,000달러 이상으로 추정
- VR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Oculus Quest2가 299달러인 것과 비교하며 상당히 높은 가격대. 짐작컨대 단기 시장 침투 목적보다는 비슷한 Spec을 가진 비슷한 가격대의 AR 출시 했을 경우의 시장 반응과 시장성 등을 미리 확인해보기 위함으로 판단. 2024년 출시가 점쳐지는 Apple AR Glass가 최종 종착점. 2025년부터는 AR 시장 규모가 VR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Apple XR 기기 렌더링 이미지



자료 : Apple Ins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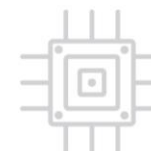
Apple, AR Glass 렌더링 이미지



자료 : IDROPnews

Chapter 3

제조사별 영향 분석



삼성전자: 갤럭시 S22 흥행 자신감과 ODM 물량 확대

Industry Analysis

- 2021년 출하량: 2.7억대 YoY +7% 기록
- 2022년 출하량: 3.0 ~ 3.2억대 YoY +9 ~ +17% band 추정
- 오는 2월 갤럭시 S22 출시 예정. 4,000만대 이상의 출하량 자신(S20, S21 2,000만대 중반 수준)
- ODM 물량도 연간 6,000~7,000만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전체 비중의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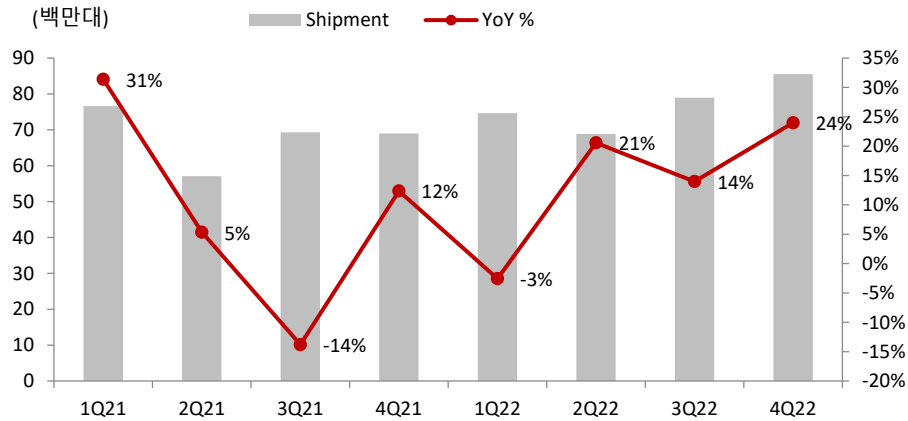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77	57	69	69	75	69	79	86		254	272	308
	Bear	77	57	69	69	72	67	76	82		254	272	297
	Bull	77	57	69	69	76	71	82	89		254	272	317
YoY %													
	Base	31%	5%	-14%	12%	-3%	21%	14%	24%		-14%	7%	13%
	Bear	31%	5%	-14%	12%	-5%	17%	10%	18%		-14%	7%	9%
	Bull	31%	5%	-14%	12%	-1%	24%	18%	29%		-14%	7%	17%
M/S % in Base													
	Asia	29%	27%	29%	28%	26%	31%	30%	29%		27%	29%	29%
	China	1%	1%	1%	1%	1%	1%	1%	1%		1%	1%	1%
	India	10%	10%	12%	11%	11%	12%	15%	15%		13%	11%	13%
	Others	18%	16%	16%	15%	14%	17%	15%	13%		13%	16%	15%
	N.A.	13%	16%	17%	15%	16%	14%	18%	14%		14%	15%	15%
	L.A.	18%	20%	16%	17%	18%	19%	17%	18%		20%	18%	18%
	W.E.	15%	12%	13%	15%	17%	12%	12%	14%		15%	14%	14%
	C&E E.	11%	9%	10%	11%	10%	10%	10%	11%		12%	10%	10%
	MEA	14%	15%	14%	14%	13%	15%	13%	14%		14%	14%	14%

자료: SK증권

Samsung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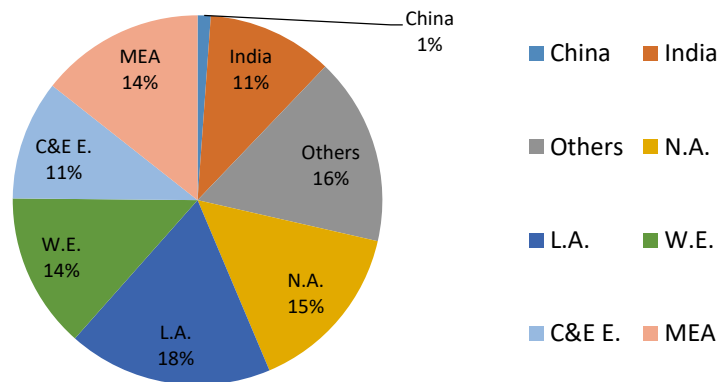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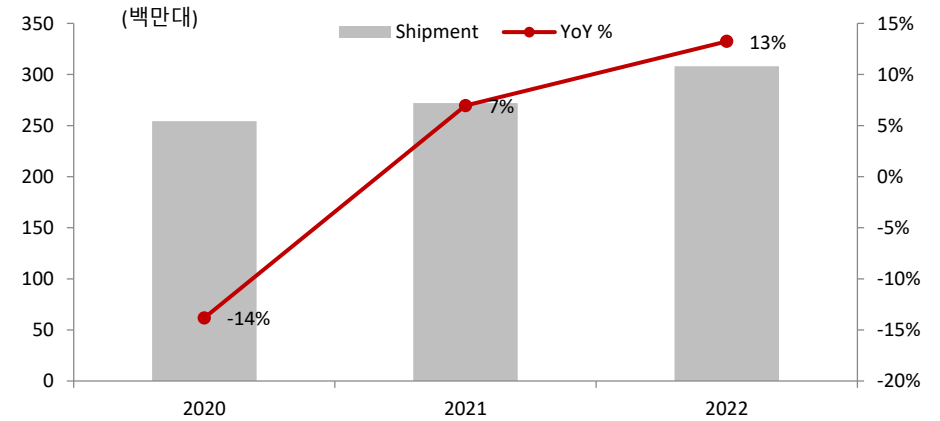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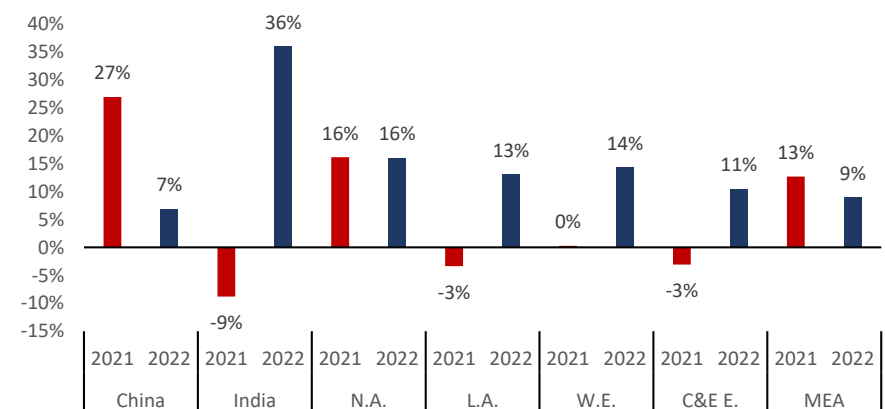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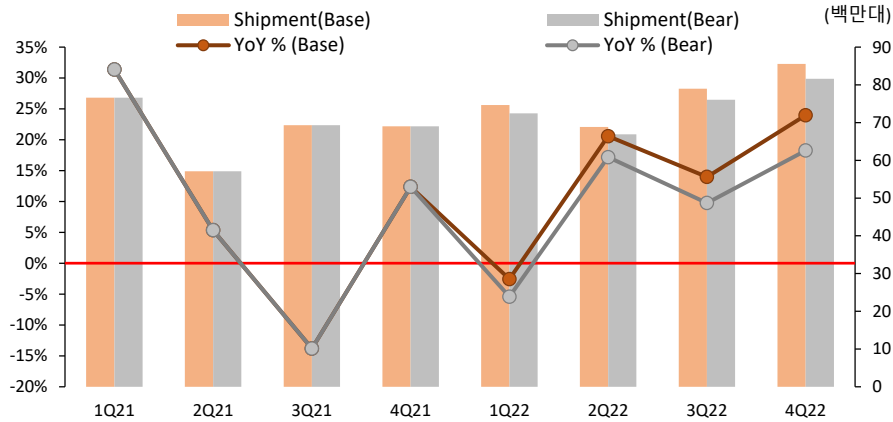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Samsung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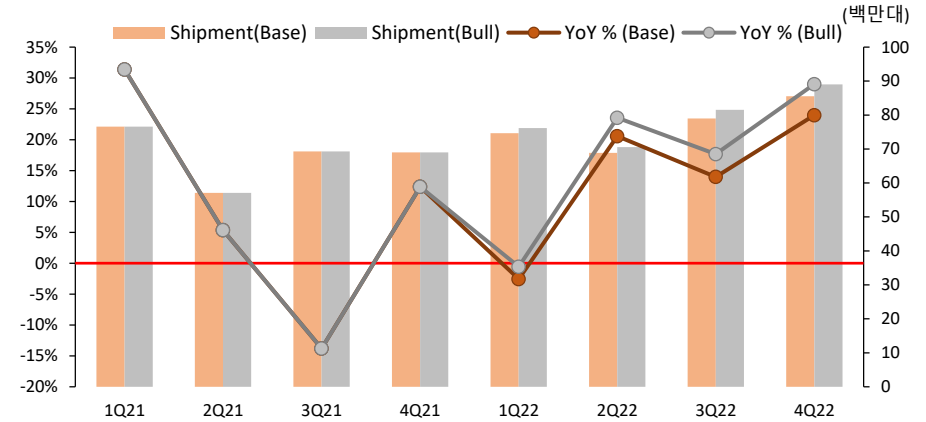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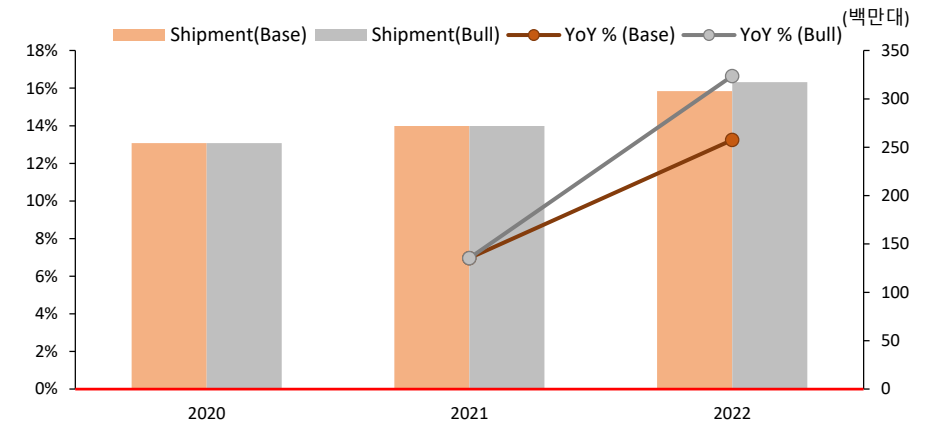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Apple: 부드럽게 이어지는 흥행 효과

- 2021년 출하량: 2.3억대 YoY +11% 기록
- 2022년 출하량: 2.5 ~ 2.7억대 YoY +9 ~ +16% band 추정
- 아이폰13 시리즈 흥행 지속과 4월 아이폰 SE3 출시로 상반기 계절성 크게 완화. Tight한 공급망 관리로 부품 수급 상황도 다른 업체 대비 나은 상황
- 아이폰14 시리즈는 전면 펀치홀 디자인, 카메라 화소수 상향(48MP), FoD 등 폼팩터 변화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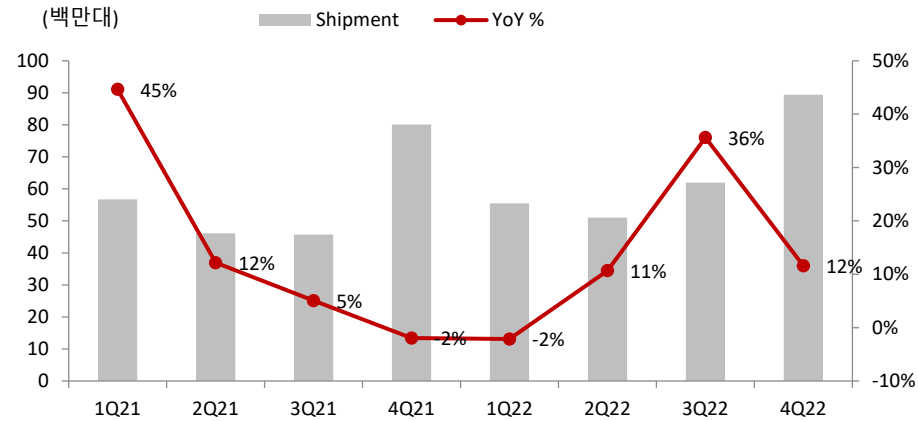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57	46	46	80	55	51	62	89		206	229	258
	Bear	57	46	46	80	54	50	60	85		206	229	249
	Bull	57	46	46	80	57	52	64	93		206	229	266
YoY %													
	Base	45%	12%	5%	-2%	-2%	11%	36%	12%		4%	11%	13%
	Bear	45%	12%	5%	-2%	-5%	8%	31%	7%		4%	11%	9%
	Bull	45%	12%	5%	-2%	0%	14%	40%	16%		4%	11%	16%
M/S % in Base													
	Asia	42%	43%	45%	41%	41%	44%	45%	39%		40%	43%	42%
	China	22%	20%	20%	22%	19%	19%	22%	21%		17%	21%	20%
	India	2%	1%	3%	3%	3%	4%	4%	3%		1%	2%	3%
	Others	18%	22%	21%	17%	19%	21%	19%	16%		22%	19%	18%
	N.A.	24%	24%	25%	25%	24%	23%	23%	25%		25%	25%	24%
	L.A.	6%	7%	6%	5%	7%	6%	5%	5%		8%	6%	6%
	W.E.	18%	17%	17%	20%	17%	15%	16%	20%		18%	18%	17%
	C&E E.	5%	4%	3%	3%	5%	4%	4%	4%		4%	4%	4%
	MEA	5%	5%	4%	4%	8%	9%	7%	6%		5%	5%	7%

자료: SK증권

Apple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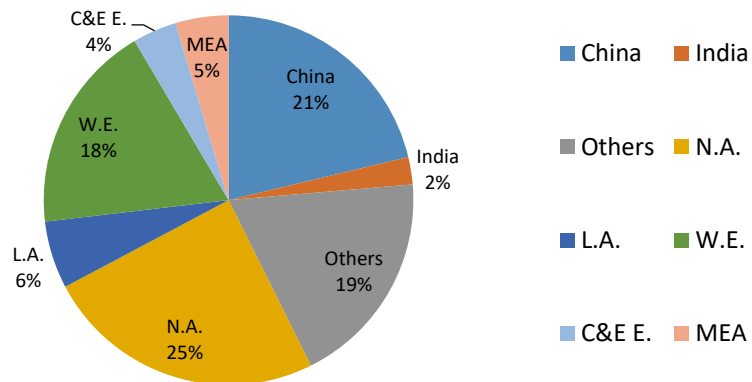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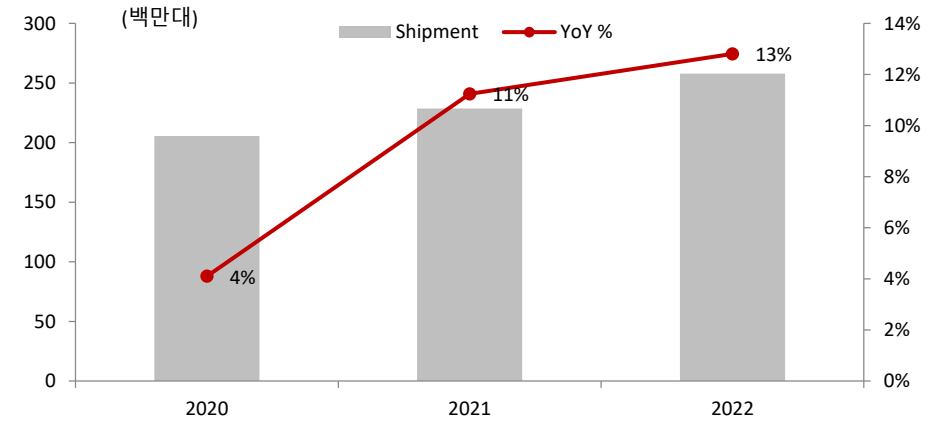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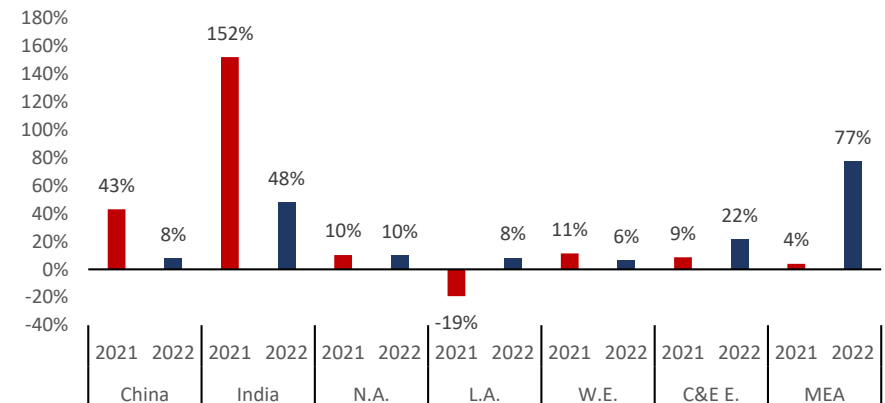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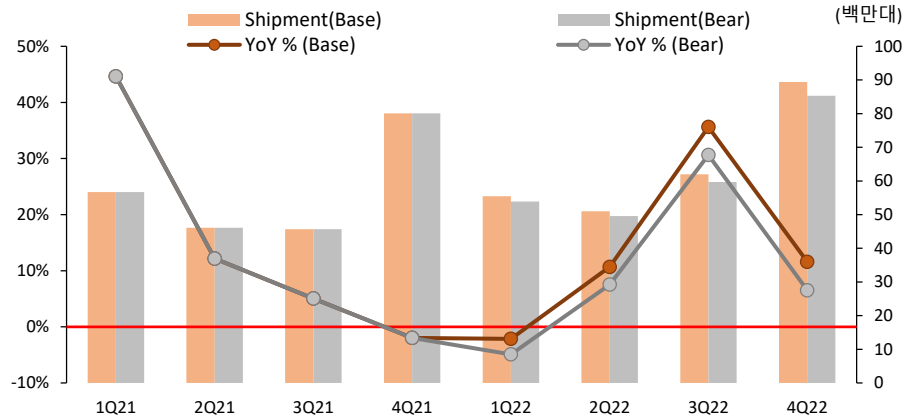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Apple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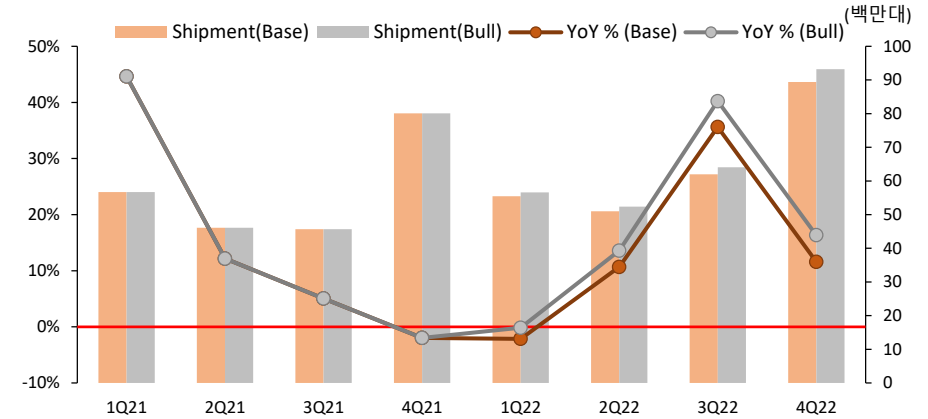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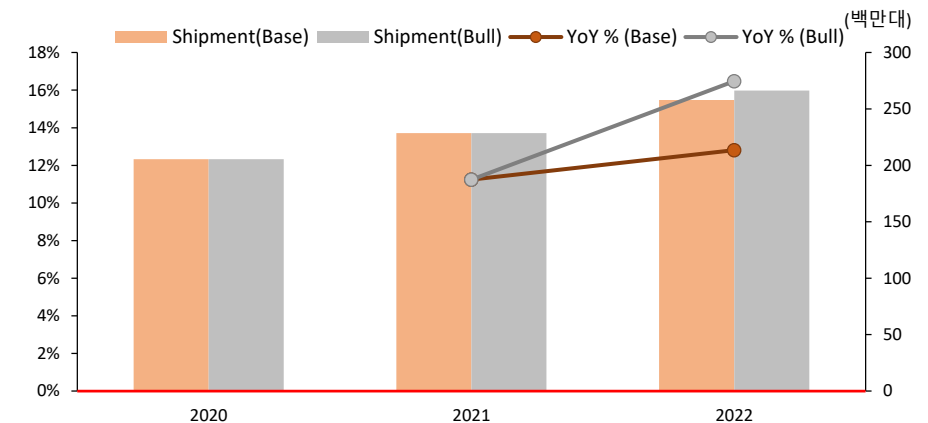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Huawei: Honor가 만회한 Huawei 물량

- 2021년 출하량: 69백만대 YoY -63% 기록
- 2022년 출하량: 69 ~ 73백만대 YoY -1 ~ +6% band 추정
- 2021년 Huawei 순수 2,630만대, Honor 4,330만대. Huawei 순수 물량은 상당부분 감소했으며 Honor가 중국 내에서 Huawei 감소를 일부 make-up. Honor를 포함한 향후 Huawei 연간 출하량은 7천만대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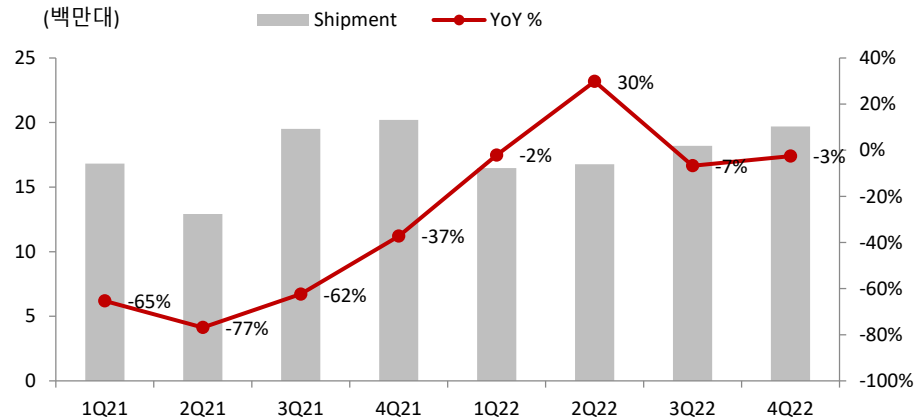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17	13	20	20	16	17	18	20		188	69	71
	Bear	17	13	20	20	16	16	18	19		188	69	69
	Bull	17	13	20	20	17	17	19	21		188	69	73
YoY %													
	Base	-65%	-77%	-62%	-37%	-2%	30%	-7%	-3%		-22%	-63%	2%
	Bear	-65%	-77%	-62%	-37%	-5%	26%	-10%	-7%		-22%	-63%	-1%
	Bull	-65%	-77%	-62%	-37%	0%	33%	-4%	2%		-22%	-63%	6%
M/S % in Base													
	Asia	68%	84%	96%	91%	85%	85%	84%	83%		69%	86%	84%
	China	56%	33%	24%	19%	14%	14%	14%	14%		57%	32%	14%
	India	0%	1%	0%	0%	0%	0%	0%	0%		0%	0%	0%
	Others	-8%	25%	32%	36%	0%	0%	0%	0%		5%	22%	0%
	N.A.	0%	0%	0%	0%	0%	0%	0%	0%		0%	0%	0%
	L.A.	6%	3%	1%	1%	0%	0%	0%	0%		7%	2%	0%
	W.E.	5%	3%	1%	1%	2%	2%	2%	3%		6%	2%	3%
	C&E E.	13%	6%	1%	5%	12%	13%	13%	14%		10%	6%	13%
	MEA	8%	4%	1%	1%	0%	0%	0%	0%		8%	3%	0%

자료: SK증권

Huawei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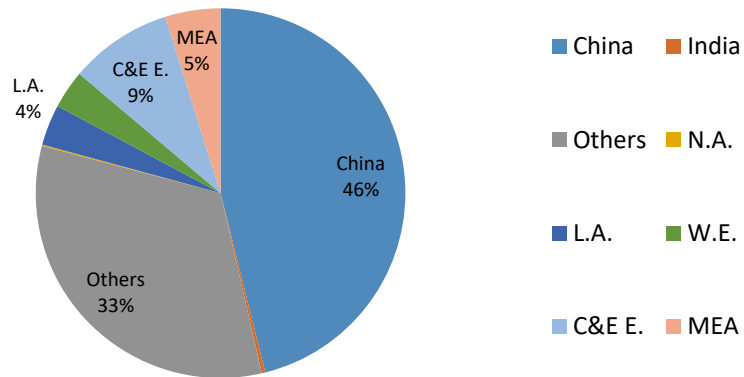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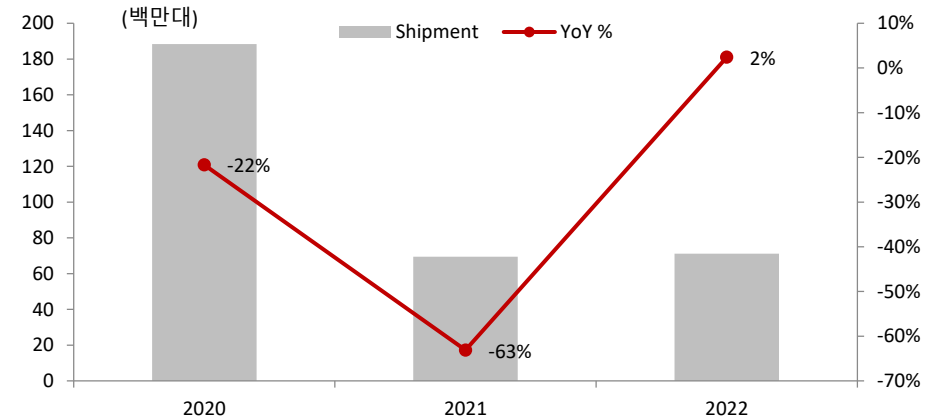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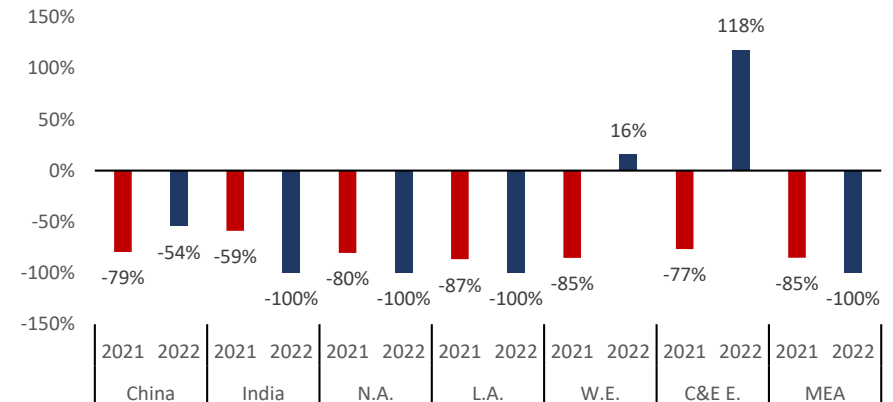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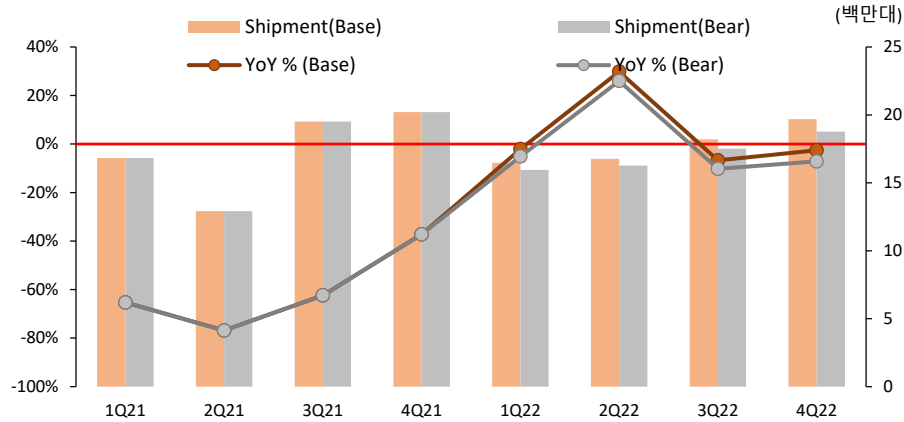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Huawei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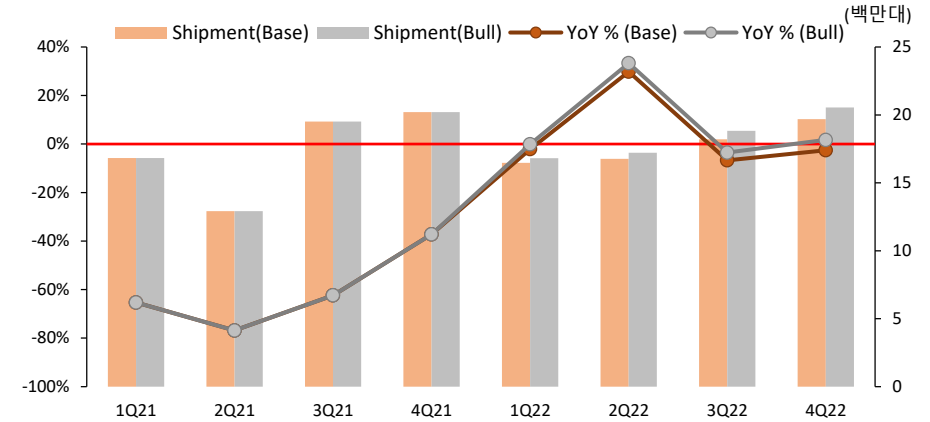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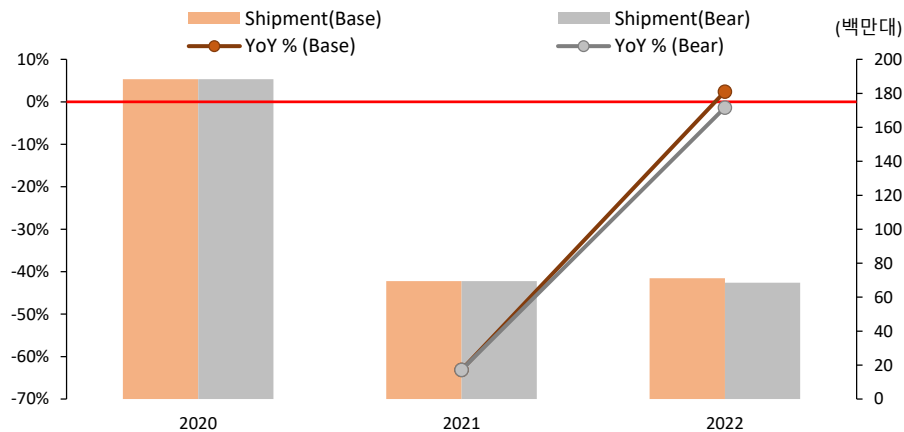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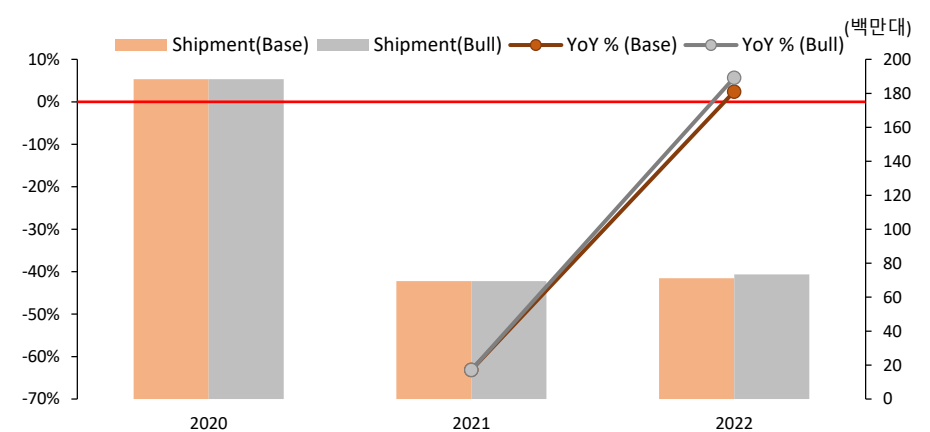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9억대 YoY +31% 기록
- 2022년 출하량: 2.0 ~ 2.2억대 YoY +5 ~ +13% band 추정
- Huawei 반사 수혜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한창인 가운데 중저가 영역에서는 Xiaomi가 대다수 흡수하며 SET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시현. 그러나 2H21부터 부품 공급 부족 영향을 크게 받으며 올해는 9% 내외의 제한적인 성장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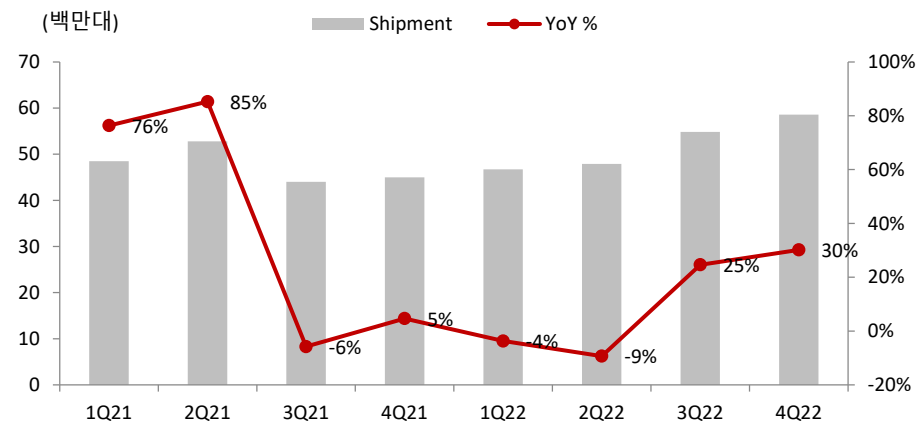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49	53	44	45	47	48	55	59		146	190	208
	Bear	49	53	44	45	45	46	53	56		146	190	200
	Bull	49	53	44	45	48	49	57	61		146	190	215
YoY %													
	Base	76%	85%	-6%	5%	-4%	-9%	25%	30%		17%	31%	9%
	Bear	76%	85%	-6%	5%	-7%	-12%	20%	24%		17%	31%	5%
	Bull	76%	85%	-6%	5%	-2%	-7%	29%	36%		17%	31%	13%
M/S % in Base													
	Asia	61%	57%	59%	60%	55%	59%	57%	55%		68%	59%	57%
	China	27%	27%	24%	22%	22%	22%	21%	21%		23%	25%	22%
	India	20%	16%	21%	25%	15%	18%	19%	20%		26%	20%	18%
	Others	14%	14%	14%	13%	18%	19%	17%	15%		18%	14%	17%
	N.A.	0%	0%	0%	0%	0%	0%	0%	0%		0%	0%	0%
	L.A.	8%	9%	9%	8%	9%	9%	8%	9%		4%	9%	9%
	W.E.	8%	9%	10%	10%	13%	8%	13%	12%		9%	9%	12%
	C&E E.	14%	15%	13%	13%	13%	13%	12%	13%		14%	14%	13%
	MEA	9%	10%	8%	9%	10%	10%	9%	11%		6%	9%	10%

자료: SK증권

Xiaomi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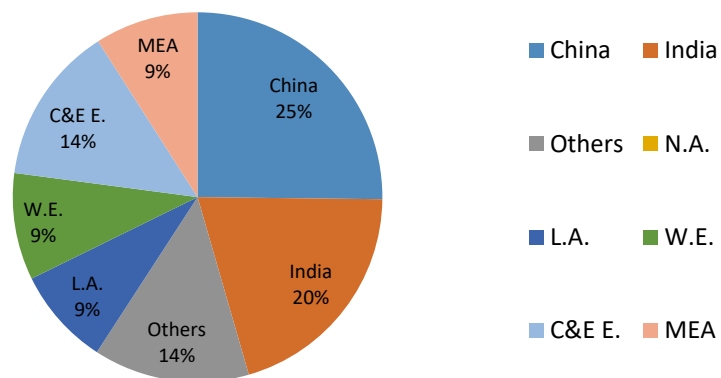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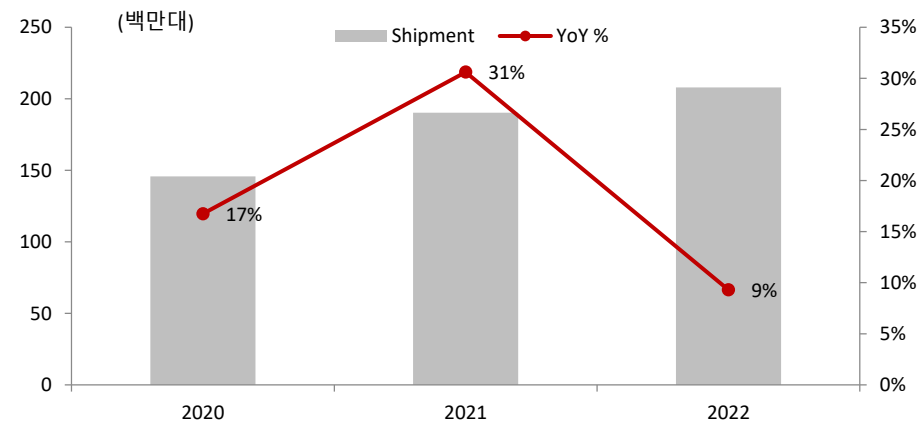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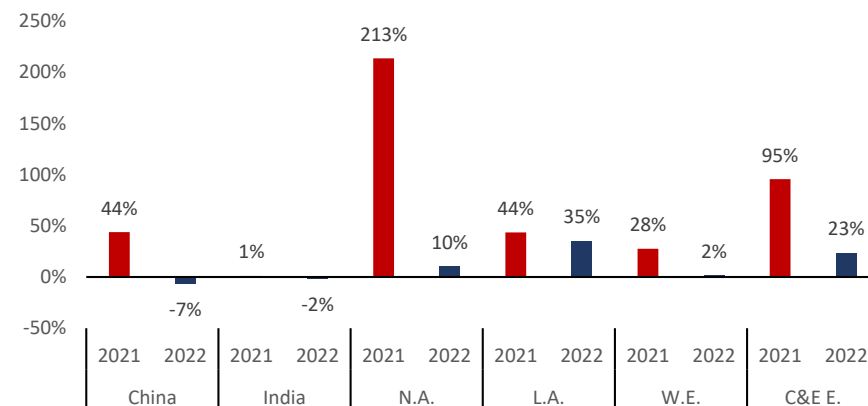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Xiaomi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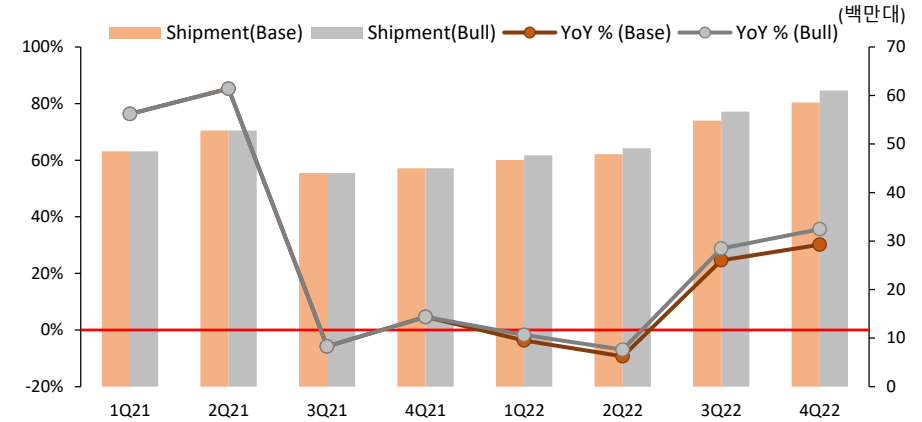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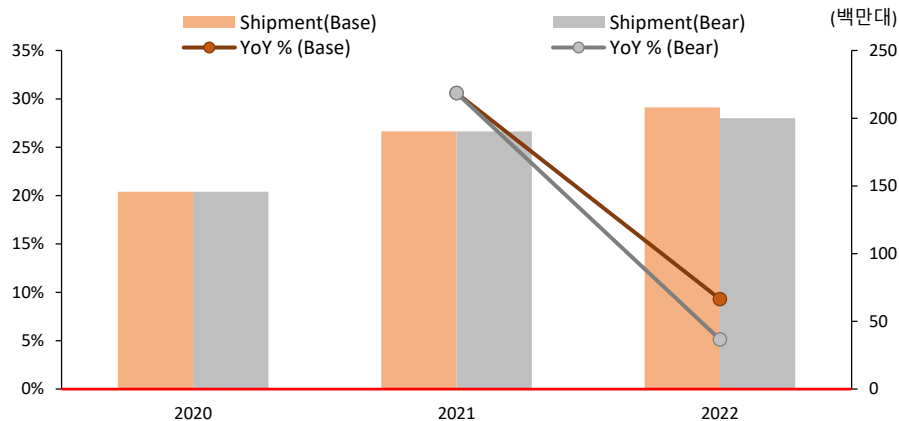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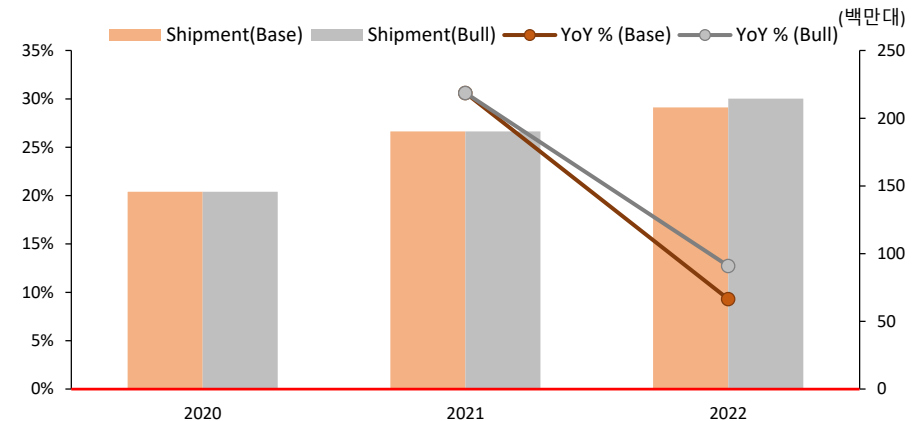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Oppo

- 2021년 출하량: 1.4억대 YoY +19% 기록
- 2022년 출하량: 1.4 ~ 1.5억대 YoY +6 ~ +13% band 추정

▪ Vivo

- 2021년 출하량: 1.3억대 YoY +17% 기록
- 2022년 출하량: 1.4 ~ 1.5억대 YoY +3 ~ +11% band 추정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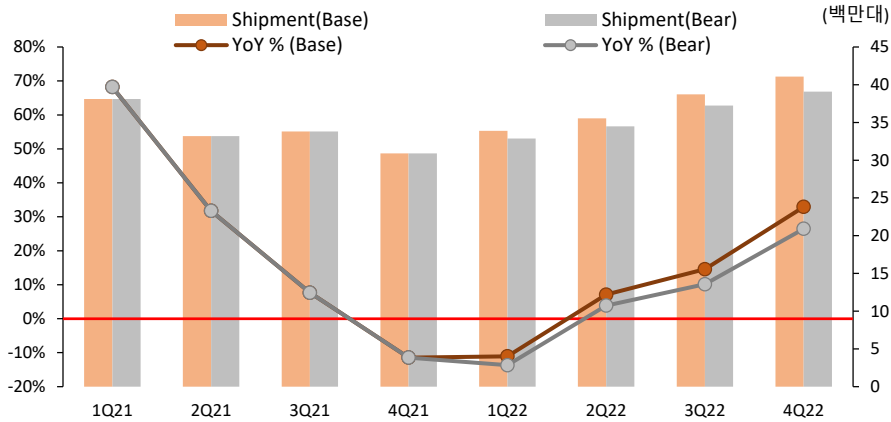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Oppo Shipment													
	Base	38	33	34	31	34	36	39	41		114	136	149
	Bear	38	33	34	31	33	34	37	39		114	136	144
	Bull	38	33	34	31	35	36	40	43		114	136	154
YoY %													
	Base	68%	32%	8%	-11%	-11%	7%	15%	33%		-1%	19%	10%
	Bear	68%	32%	8%	-11%	-14%	4%	10%	26%		-1%	19%	6%
	Bull	68%	32%	8%	-11%	-9%	10%	19%	39%		-1%	19%	13%
Vivo Shipment													
	Base	37	32	34	28	32	33	37	38		112	130	140
	Bear	37	32	34	28	31	32	35	37		112	130	135
	Bull	37	32	34	28	32	34	38	40		112	130	145
YoY %													
	Base	85%	26%	4%	-17%	-14%	5%	9%	36%		5%	17%	7%
	Bear	85%	26%	4%	-17%	-17%	2%	4%	29%		5%	17%	3%
	Bull	85%	26%	4%	-17%	-12%	8%	13%	42%		5%	17%	11%

자료: SK증권

Oppo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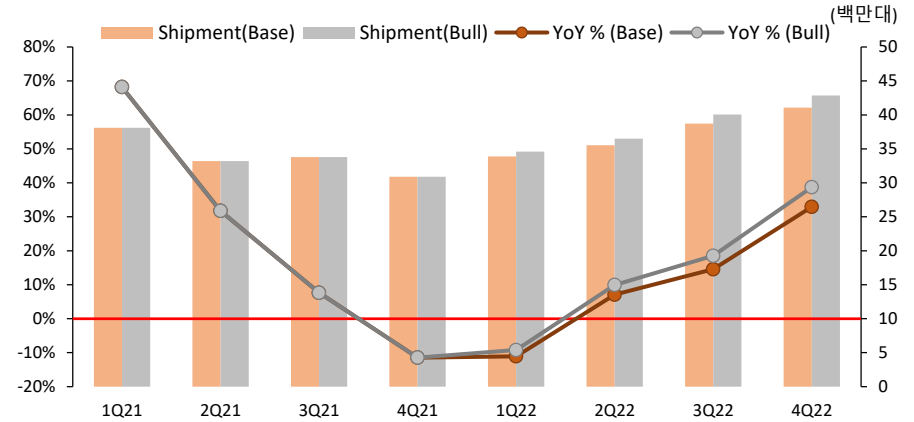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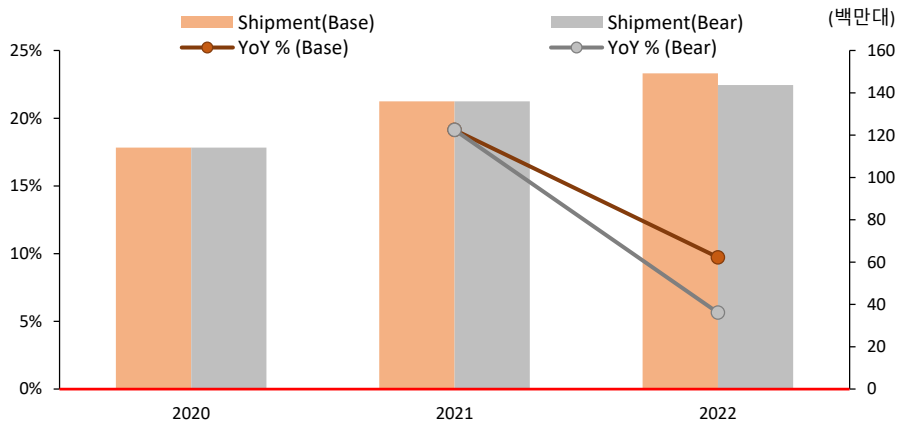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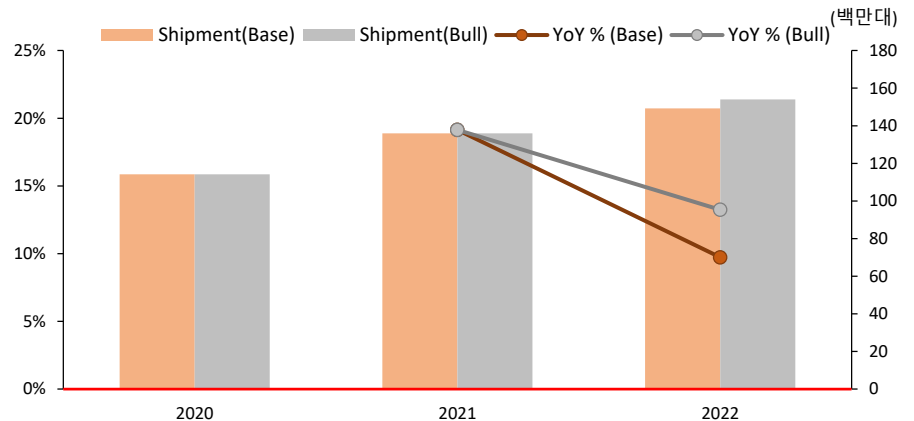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자료: SK증권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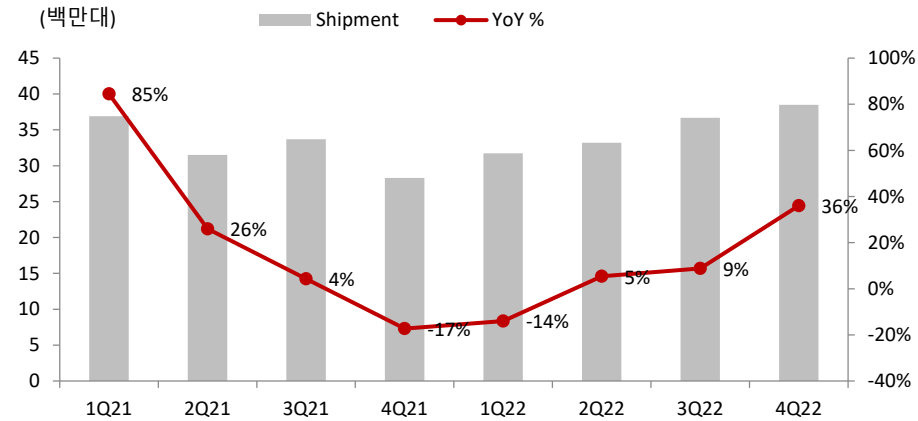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Vivo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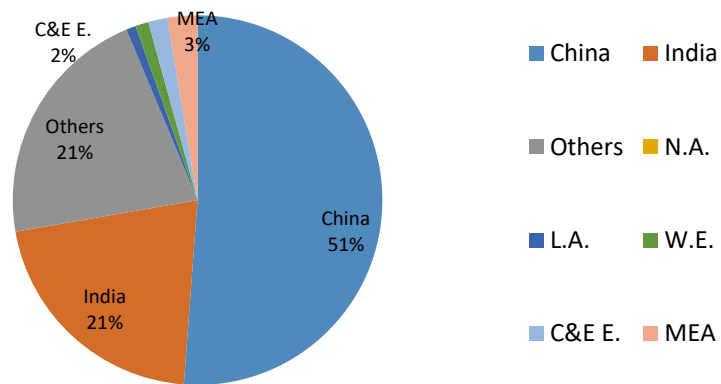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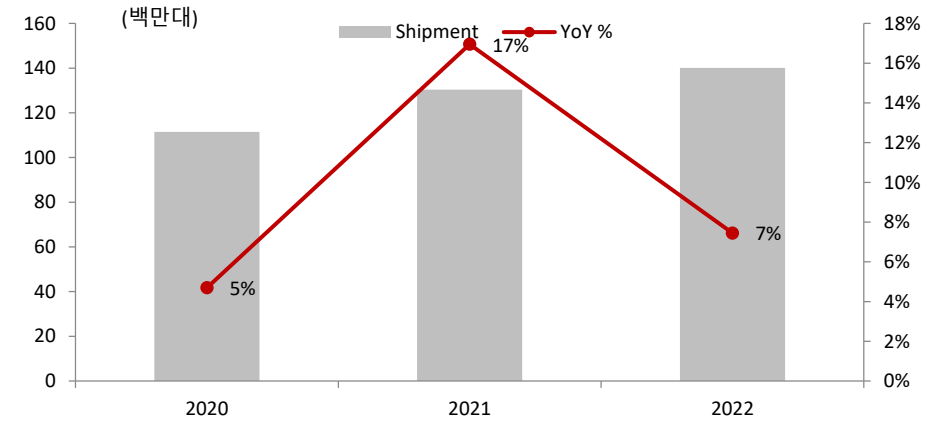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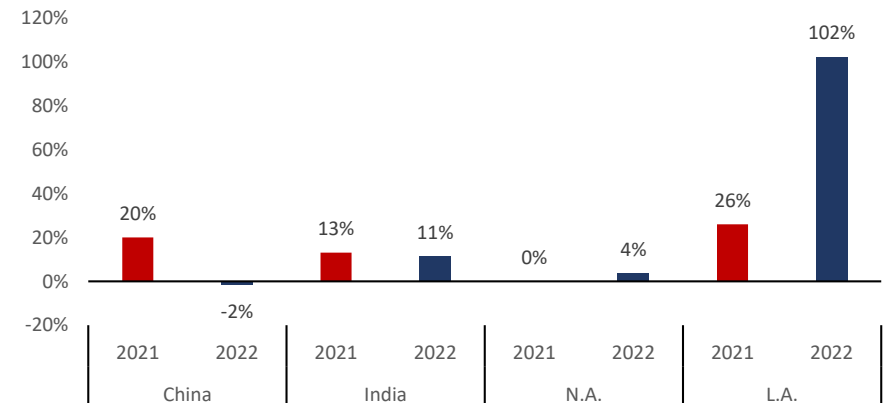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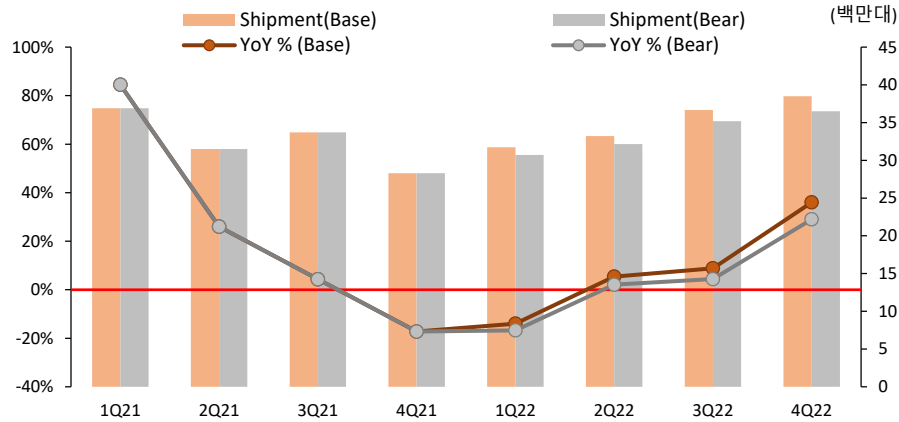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Vivo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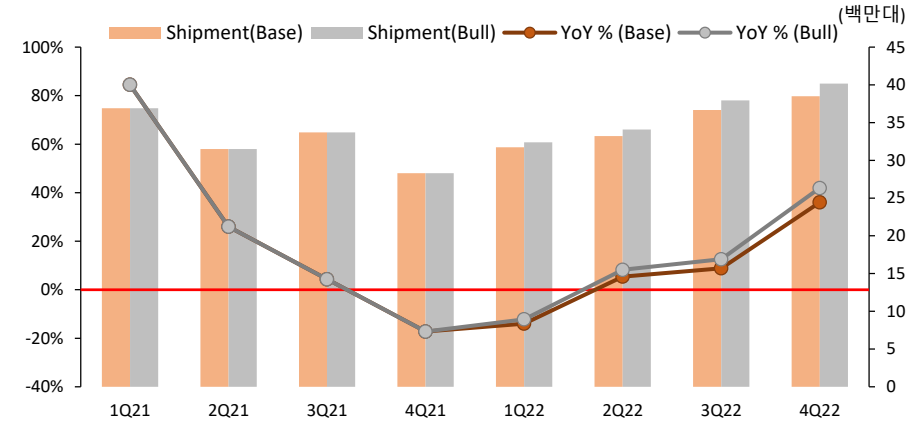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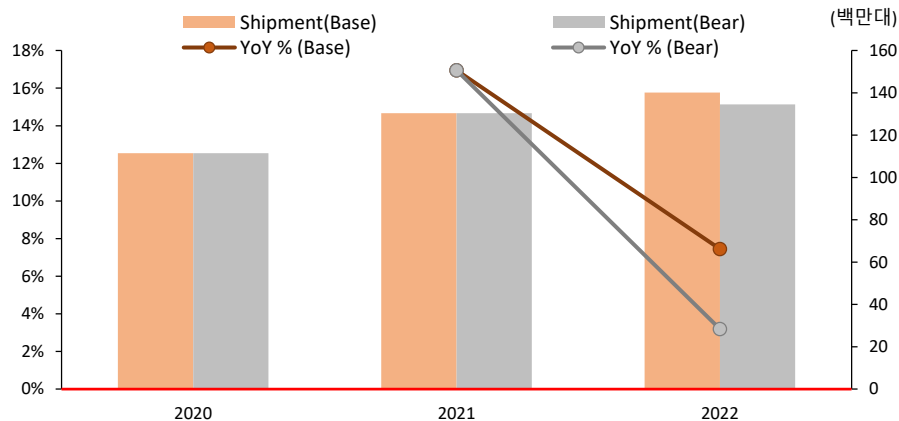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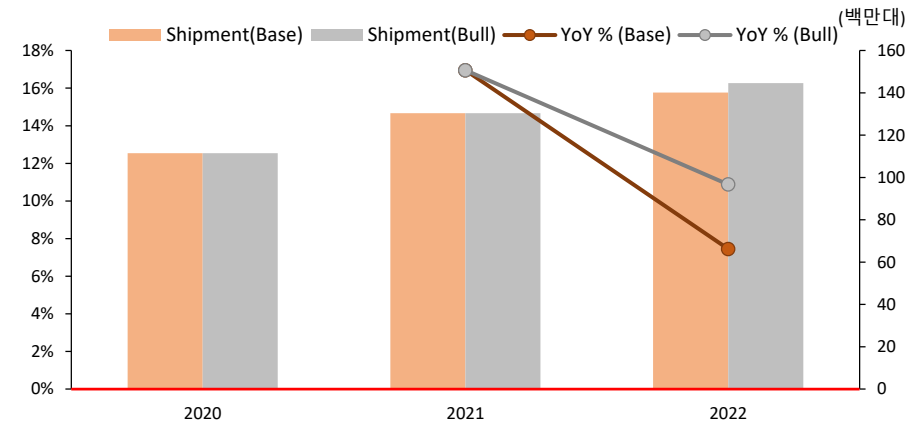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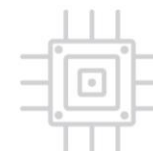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Chapter 4

지역별 영향 분석





- 2021년 출하량: 3.1억대 YoY -2% 기록
- 2022년 출하량: 3.2 ~ 3.4억대 YoY +3 ~ +10% band 추정
- 중국은 여전히 스마트폰 최대 수요처이나 포화된 시장, Huawei의 영향력 축소, 부품 공급 부족 타격이 컸던 OVX로 인해 전년에 이어 또 한번 역성장
- 2022년은 부품 공급 이슈 해소로 시장 반등. Apple은 중국 시장에서 출고가 인하와 상위 세그먼트 점유율을 넓혀 가는 중. 중저가 영역에서는 Honor가 Huawei 물량을 흡수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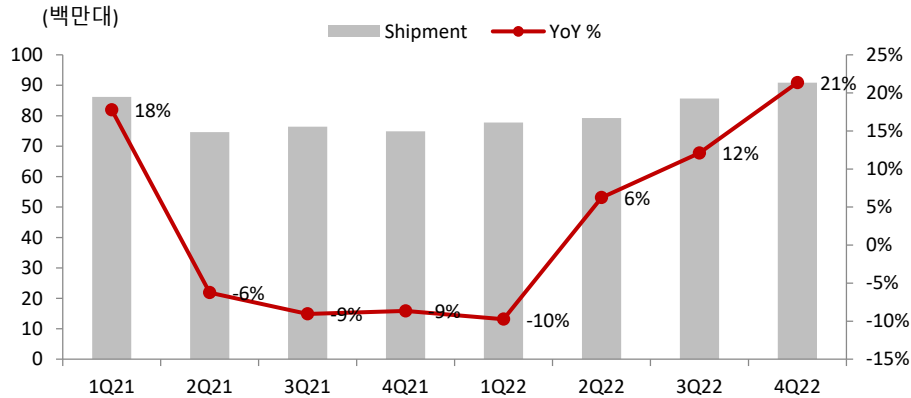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86	75	76	75	78	79	86	91		319	312	334
Bear	86	75	76	75	75	77	82	87		319	312	321
Bull	86	75	76	75	79	81	89	95		319	312	344
YoY %												
Base	18%	-6%	-9%	-9%	-10%	6%	12%	21%		-17%	-2%	7%
Bear	18%	-6%	-9%	-9%	-13%	3%	8%	16%		-17%	-2%	3%
Bull	18%	-6%	-9%	-9%	-8%	9%	16%	27%		-17%	-2%	10%
M/S % in Base												
Samsung	1%	1%	1%	1%	1%	1%	1%	1%		1%	1%	1%
Apple	15%	13%	12%	23%	13%	12%	16%	20%		11%	16%	16%
Huawei	11%	6%	6%	5%	3%	3%	3%	3%		34%	7%	3%
Xiaomi	15%	19%	14%	13%	13%	13%	13%	13%		10%	15%	13%
Oppo	22%	20%	20%	17%	18%	17%	17%	17%		16%	20%	18%
Vivo	21%	23%	22%	19%	20%	19%	20%	20%		17%	21%	20%

자료: SK증권

중국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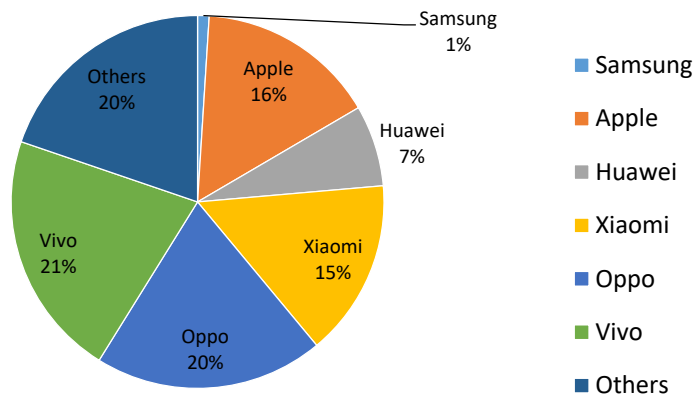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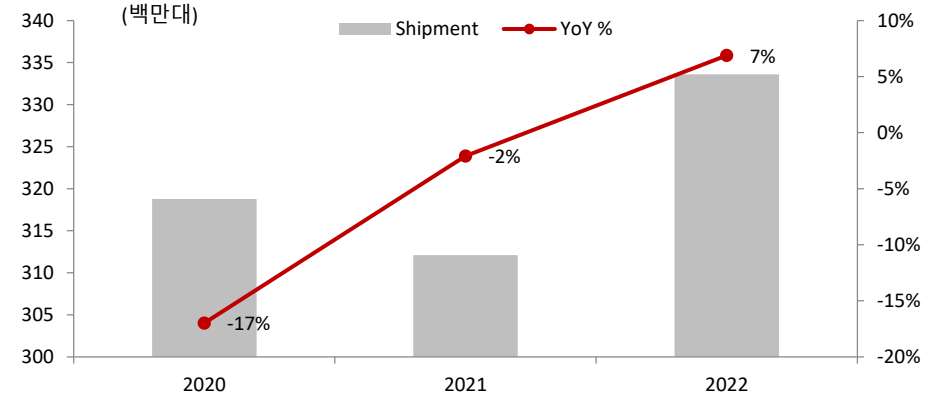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Huawei에서는 Honor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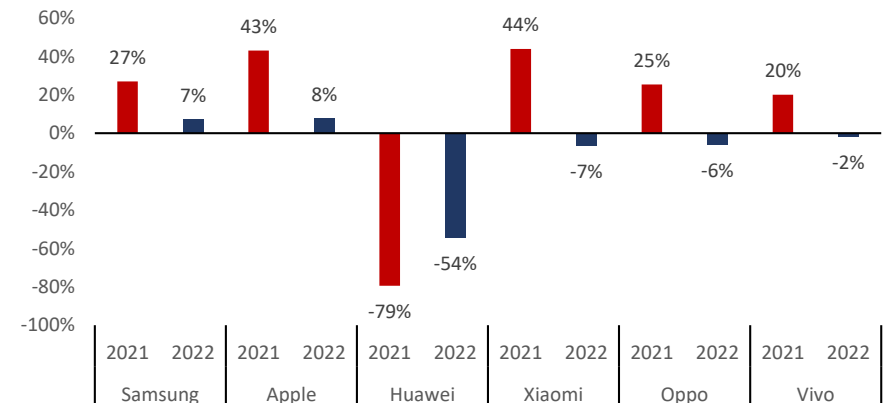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Huawei에서는 Honor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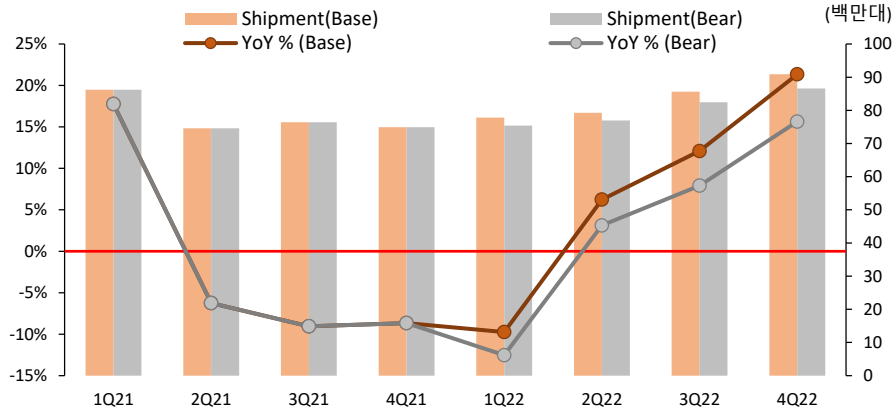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중국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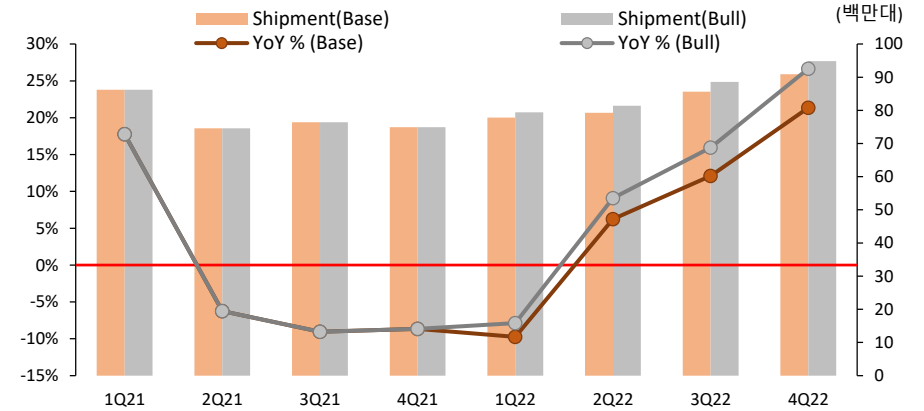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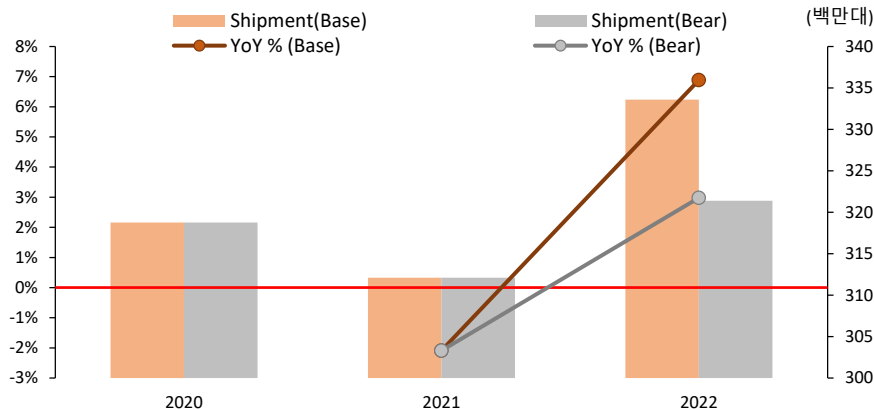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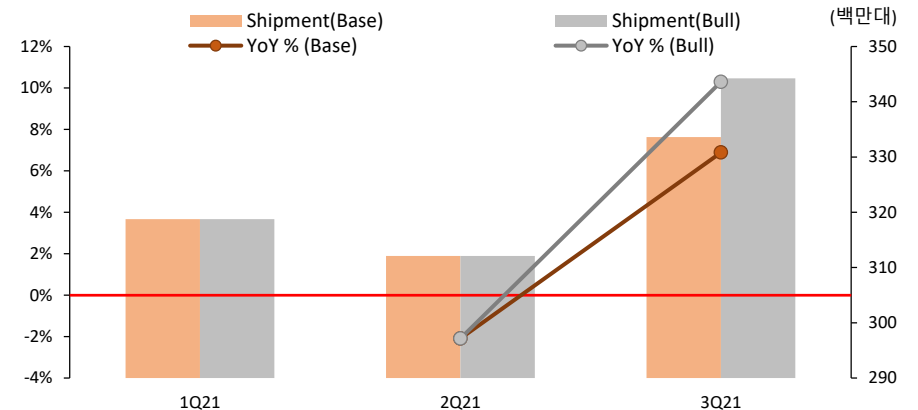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6억대 YoY +12% 기록
- 2022년 출하량: 1.7 ~ 1.9억대 YoY +6 ~ +16% band 추정
- 2021년 중동아프리카와 더불어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 성장한 시장. 스마트폰 보급률이 50%에 불과한 인도 시장은 SET 업체의 적극적인 판매 프로모션 정책이 유효
- 삼성전자와 Xiaomi 점유율 대립 구도 속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현지 ODM 물량 확대 계획으로 점유율 반전 예상. Realme와 Onelplus 같은데 2nd-tier 업체들은 여전히 부품 조달 차질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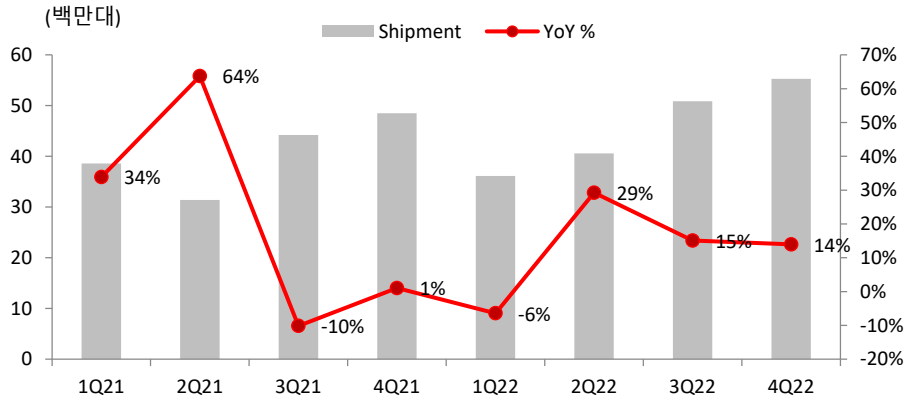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9	31	44	49	36	41	51	55		145	163	183
Bear	39	31	44	49	34	39	48	51		145	163	172
Bull	39	31	44	49	37	42	53	58		145	163	189
YoY %												
Base	34%	64%	-10%	1%	-6%	29%	15%	14%		-8%	12%	12%
Bear	34%	64%	-10%	1%	-11%	23%	9%	6%		-8%	12%	6%
Bull	34%	64%	-10%	1%	-5%	33%	19%	19%		-8%	12%	16%
M/S % in Base												
Samsung	20%	19%	19%	16%	22%	21%	23%	23%		23%	18%	22%
Apple	3%	2%	3%	5%	4%	5%	4%	4%		1%	3%	4%
Huawei	0%	0%	0%	0%	0%	0%	0%	0%		0%	0%	0%
Xiaomi	25%	26%	21%	23%	20%	21%	21%	21%		26%	24%	21%
Oppo	11%	12%	11%	8%	10%	10%	10%	10%		10%	10%	10%
Vivo	17%	19%	17%	15%	17%	17%	17%	17%		17%	17%	17%

자료: SK증권

인도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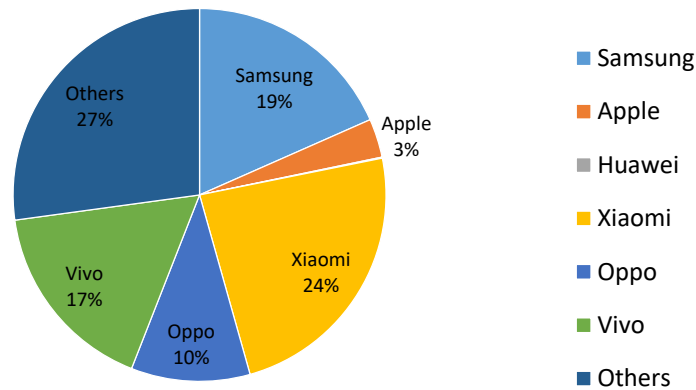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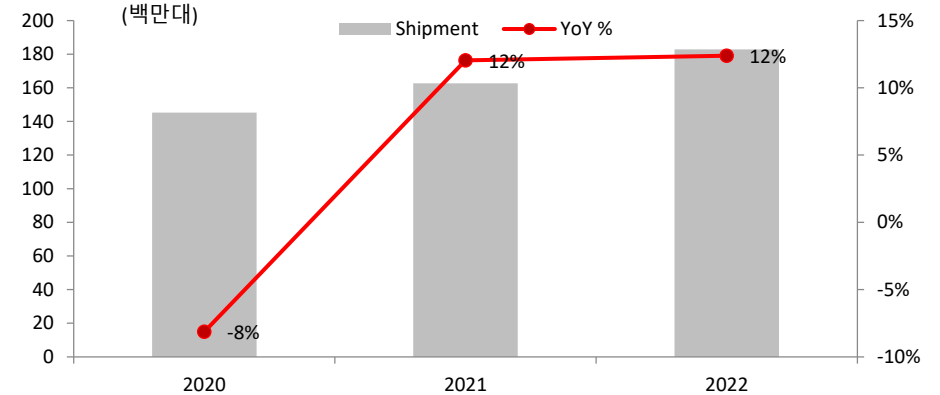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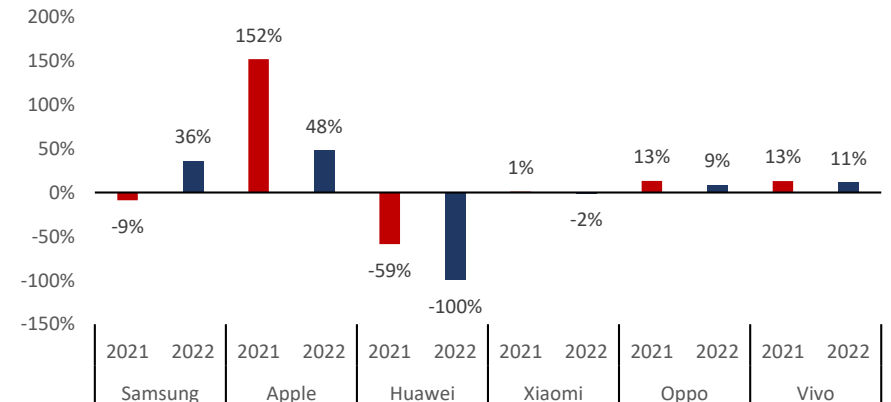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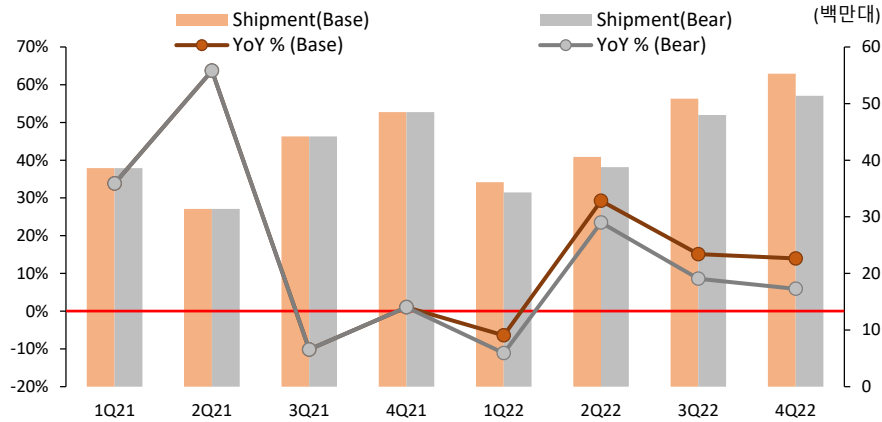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인도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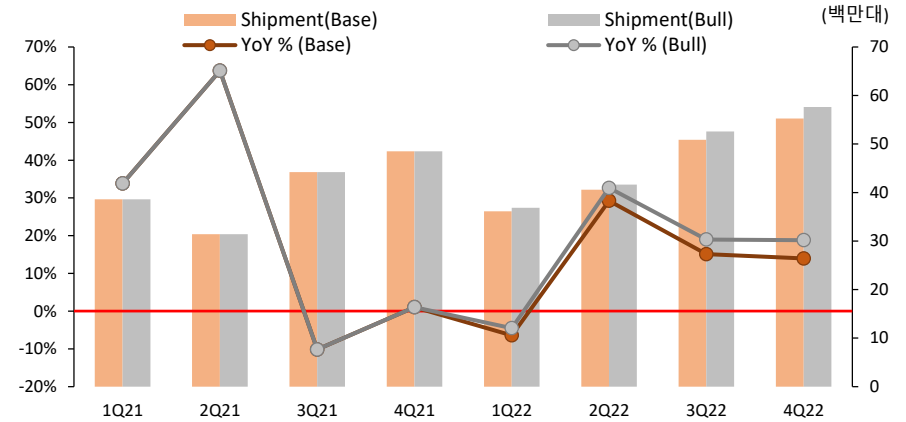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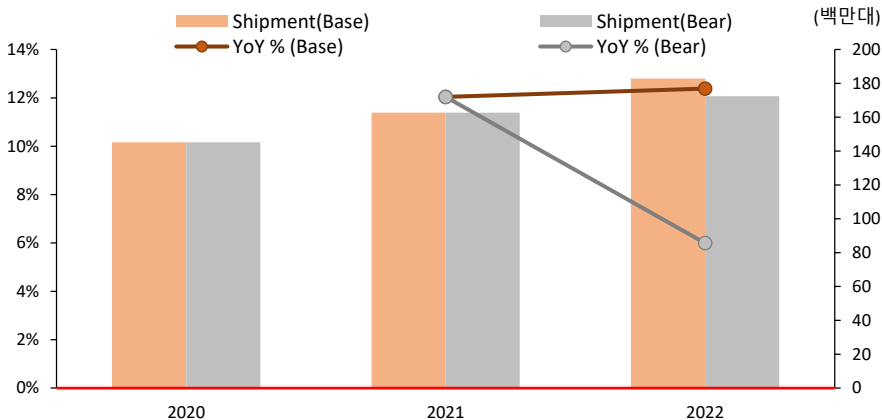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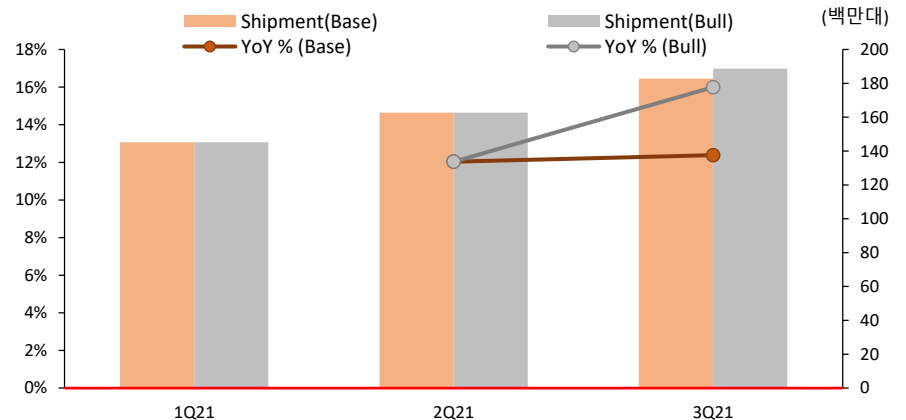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2.3억대 YoY +5% 기록
- 2022년 출하량: 2.4 ~ 2.5억대 YoY +2 ~ +8% band 추정
- 삼성전자 ODM 물량 늘릴 계획으로 인도 및 동남아 지역 점유율 확대 전략
- Huawei 점유율은 삼성전자, Vin, OVX 등이 흡수
- 제품 라인업은 100-150달러대로 삼성전자 갤럭시M의 경쟁 제품 위주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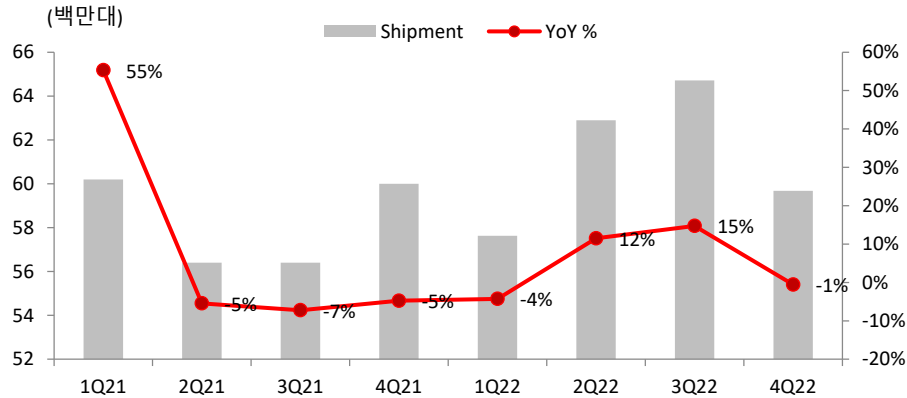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60	56	56	60	58	63	65	60		222	233	245
Bear	60	56	56	60	56	61	62	57		222	233	237
Bull	60	56	56	60	59	65	67	62		222	233	253
YoY %												
Base	55%	-5%	-7%	-5%	-4%	12%	15%	-1%		5%	5%	5%
Bear	55%	-5%	-7%	-5%	-6%	9%	11%	-5%		5%	5%	2%
Bull	55%	-5%	-7%	-5%	-2%	15%	19%	4%		5%	5%	8%
M/S % in Base												
Samsung	23%	16%	20%	18%	18%	19%	18%	18%		15%	19%	18%
Apple	17%	18%	17%	23%	19%	17%	18%	24%		21%	19%	19%
Huawei	-2%	6%	11%	12%	0%	0%	0%	0%		4%	7%	0%
Xiaomi	11%	13%	11%	9%	14%	14%	14%	14%		12%	11%	14%
Oppo	16%	14%	14%	14%	17%	17%	17%	17%		16%	14%	17%
Vivo	17%	11%	12%	8%	13%	13%	13%	13%		12%	12%	13%

자료: SK증권

기타 아시아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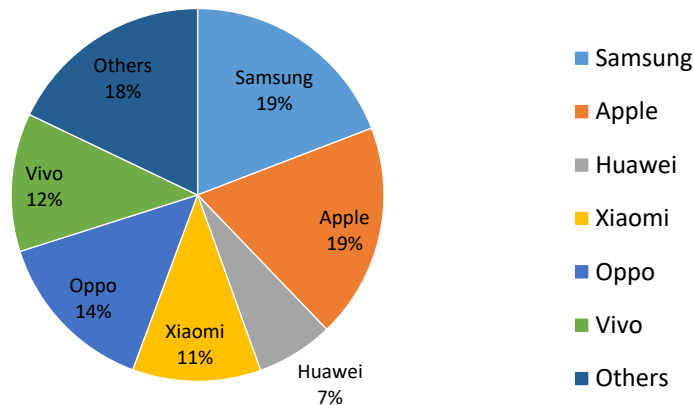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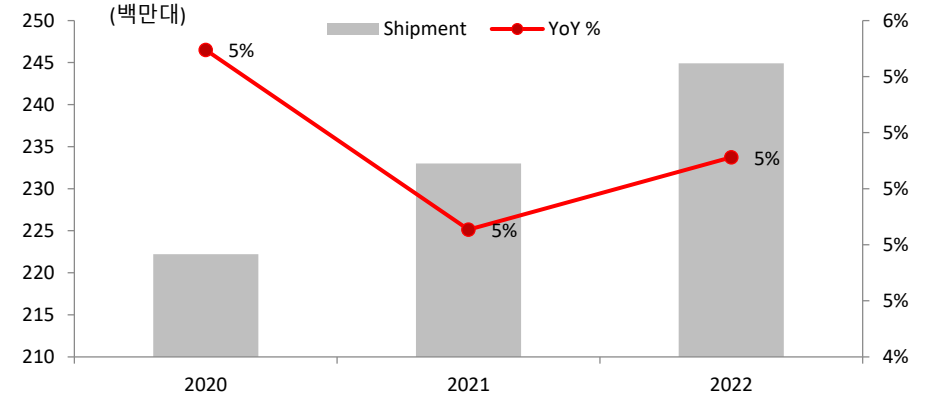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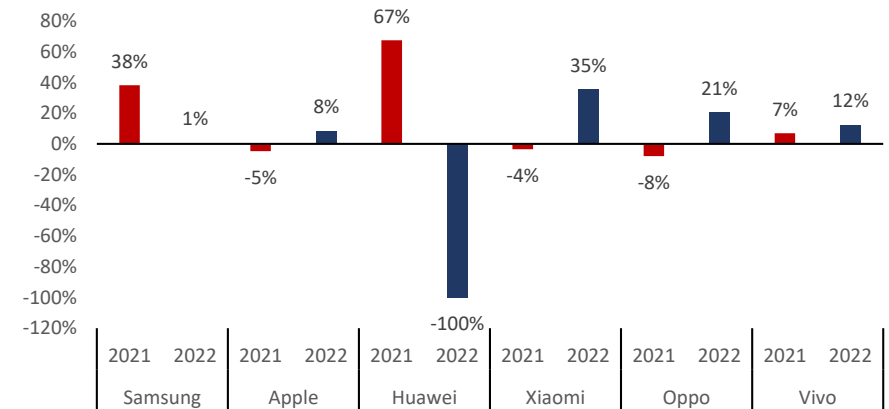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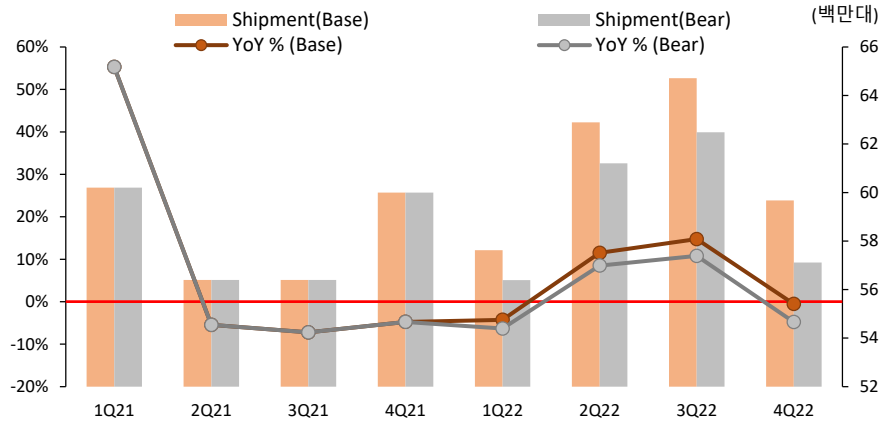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기타 아시아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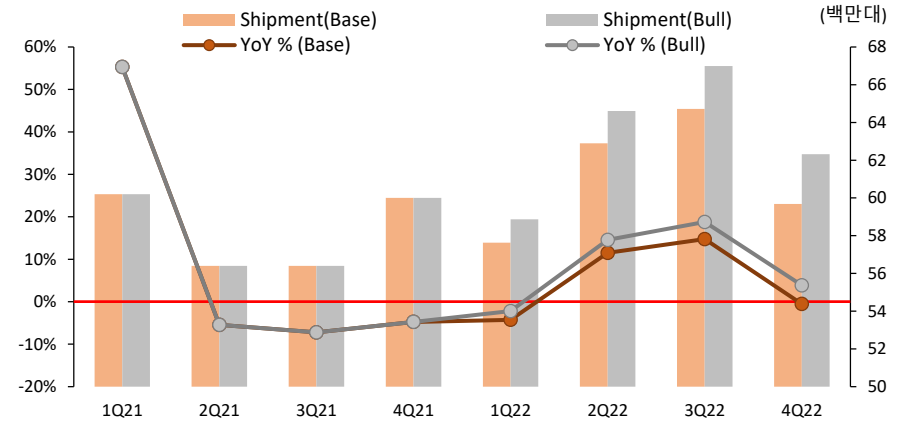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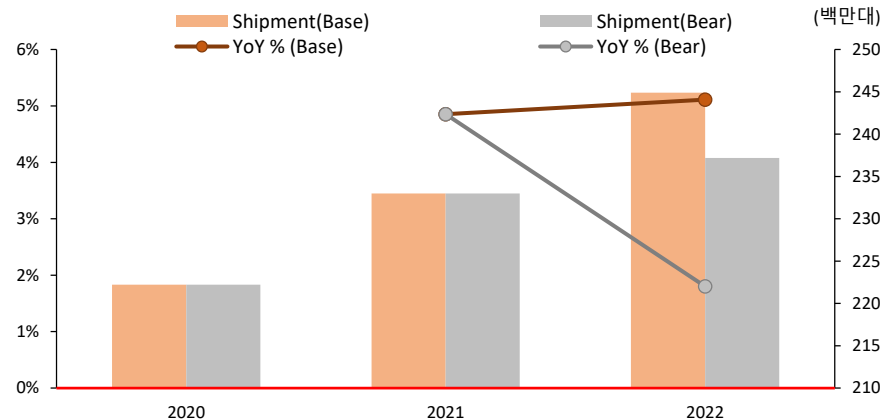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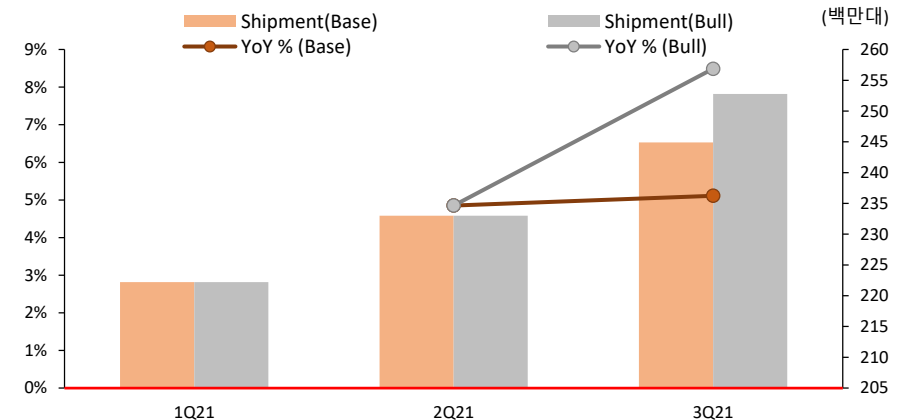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4억대 YoY +5% 기록
- 2022년 출하량: 1.5 ~ 1.6억대 YoY +8 ~ +15% band 추정
- 올해 하반기 부품 공급 부족 사태 완화 및 경기 회복 기대감. 소비 여력이 높은 선진 시장 중심 스마트폰 수요도 가장 빠르게 회복 예상
- 북미 시장에서 아이폰13 판매 압도적. 1Q22에도 흥행 지속. 삼성전자 갤럭시 S22 출시로 1Q22부터 확판에 나설 계획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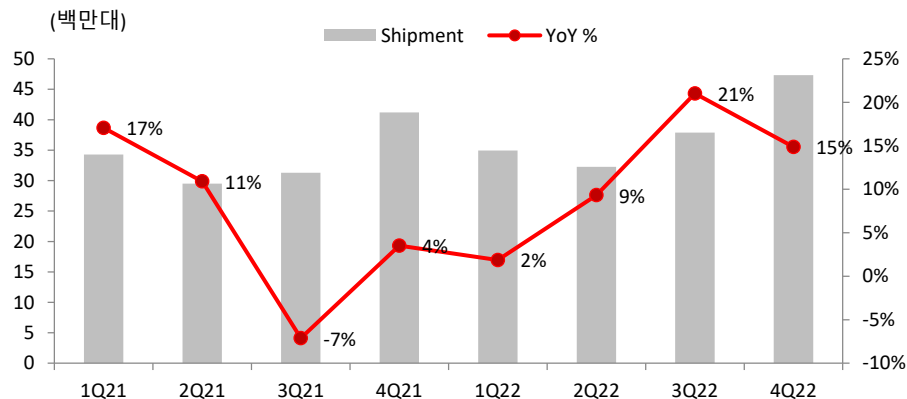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4	30	31	41	35	32	38	47		129	136	152
Bear	34	30	31	41	34	31	36	45		129	136	147
Bull	34	30	31	41	36	33	39	49		129	136	157
YoY %												
Base	17%	11%	-7%	4%	2%	9%	21%	15%		-10%	5%	12%
Bear	17%	11%	-7%	4%	-1%	6%	17%	10%		-10%	5%	8%
Bull	17%	11%	-7%	4%	4%	12%	25%	20%		-10%	5%	15%
M/S % in Base												
Samsung	29%	31%	38%	25%	34%	30%	37%	26%		27%	30%	31%
Apple	39%	37%	37%	49%	38%	36%	38%	48%		39%	41%	40%
Huawei	0%	0%	0%	0%	0%	0%	0%	0%		0%	0%	0%
Xiaomi												
Oppo												
Vivo												

자료: SK증권

북미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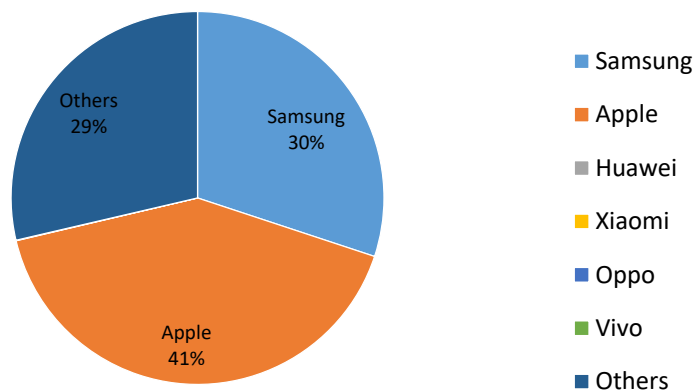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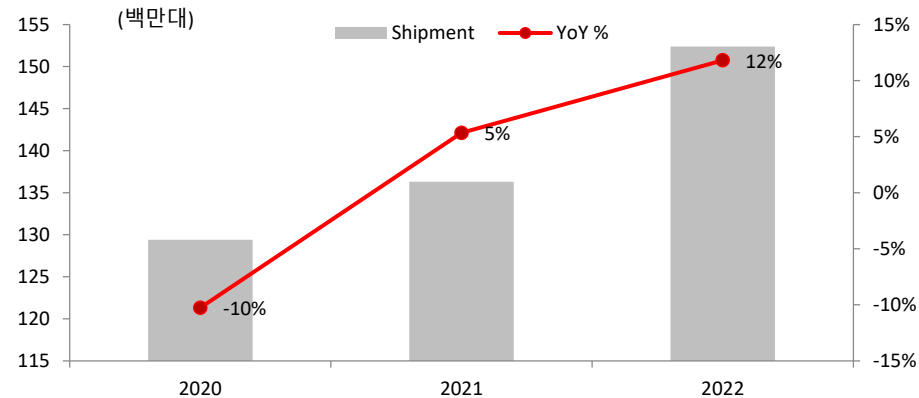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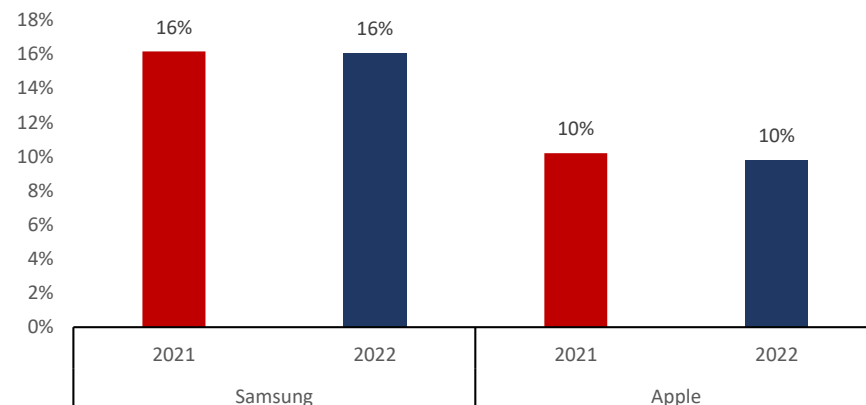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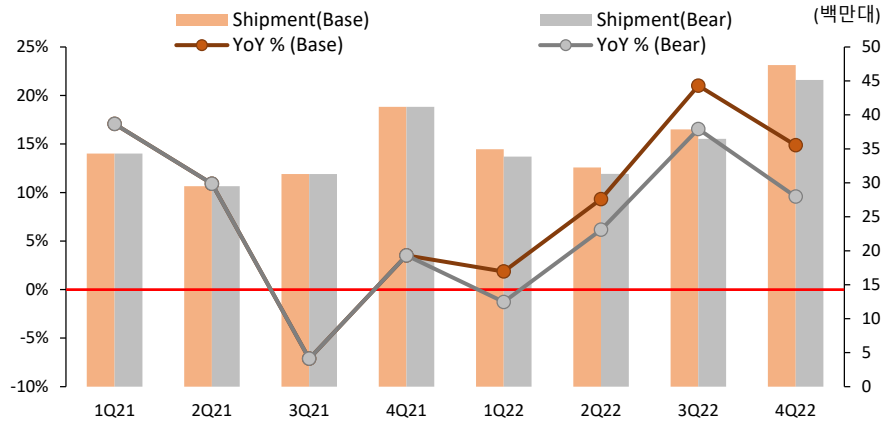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북미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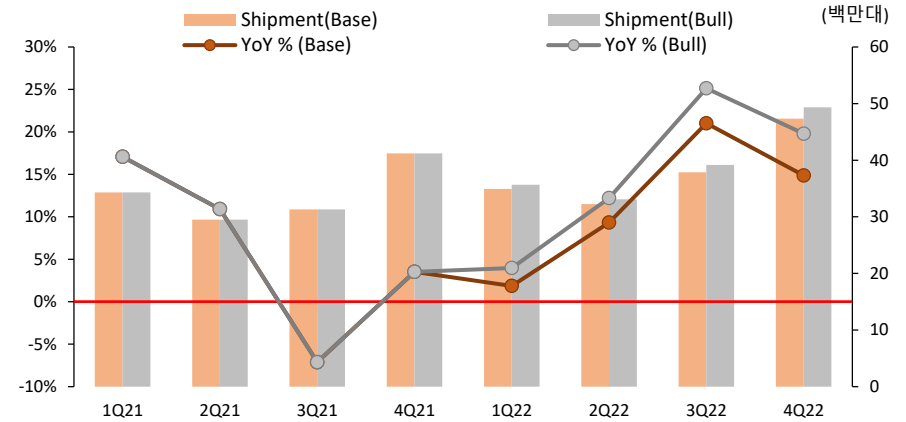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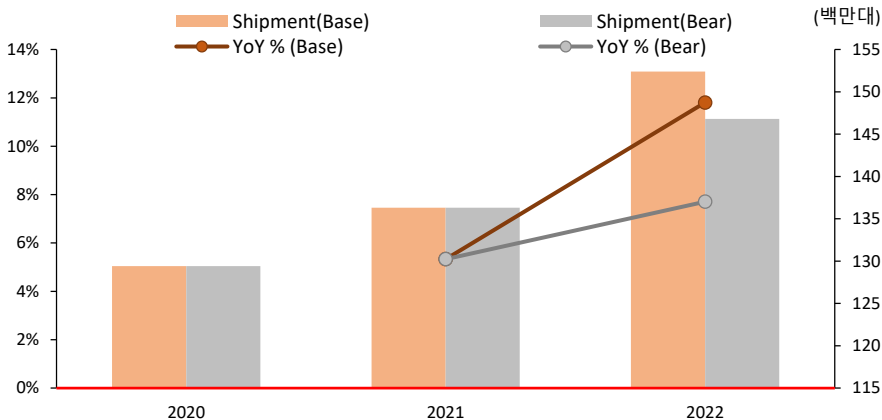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3억대 YoY +3% 기록
- 2022년 출하량: 1.4억대 수준 YoY +4 ~ +9% band 추정
- 낙후된 시설과 환경 여건,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봉쇄령으로 불확실성 여전
- 부품 공급 부족 여파로 3Q21 - 1Q22까지 출하 부진, 2Q22부터 점진적인 회복세
- 남미 지역 내 점유율 삼성전자 40%로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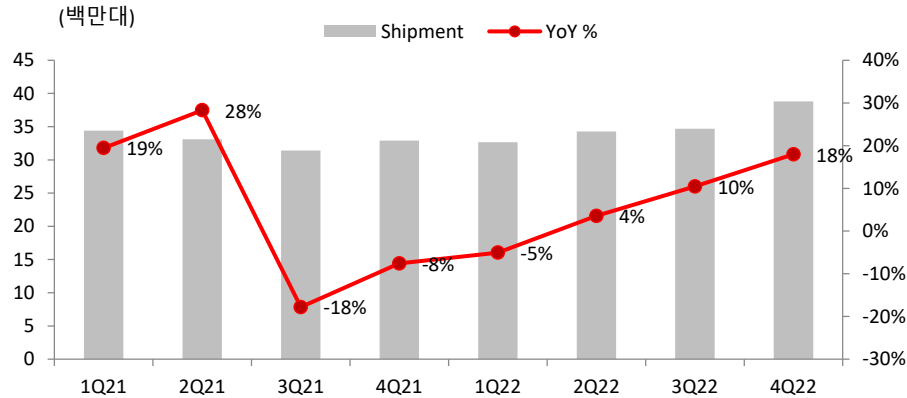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4	33	31	33	33	34	35	39		128	132	140
Bear	34	33	31	33	32	34	34	38		128	132	137
Bull	34	33	31	33	33	35	35	40		128	132	143
YoY %												
Base	19%	28%	-18%	-8%	-5%	4%	10%	18%		-10%	3%	7%
Bear	19%	28%	-18%	-8%	-7%	2%	8%	15%		-10%	3%	4%
Bull	19%	28%	-18%	-8%	-3%	5%	13%	21%		-10%	3%	9%
M/S % in Base												
Samsung	41%	34%	36%	36%	42%	38%	38%	39%		39%	37%	39%
Apple	10%	9%	9%	13%	11%	8%	9%	13%		13%	10%	10%
Huawei	3%	1%	0%	1%	0%	0%	0%	0%		10%	1%	0%
Xiaomi	11%	15%	13%	11%	13%	12%	13%	13%		4%	12%	13%
Oppo												
Vivo												

자료: SK증권

남미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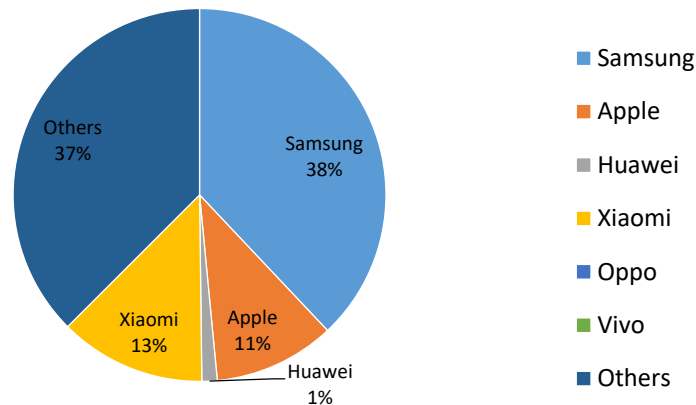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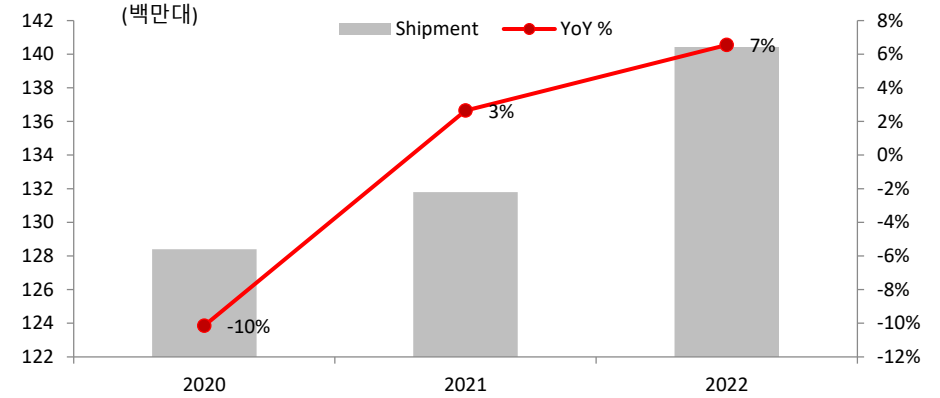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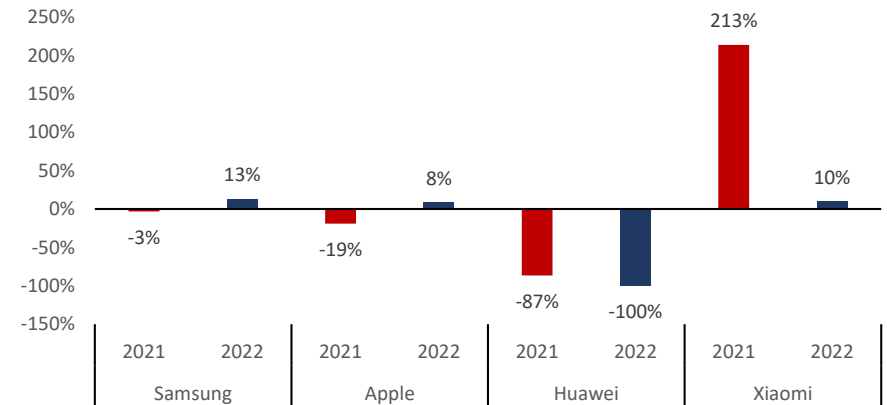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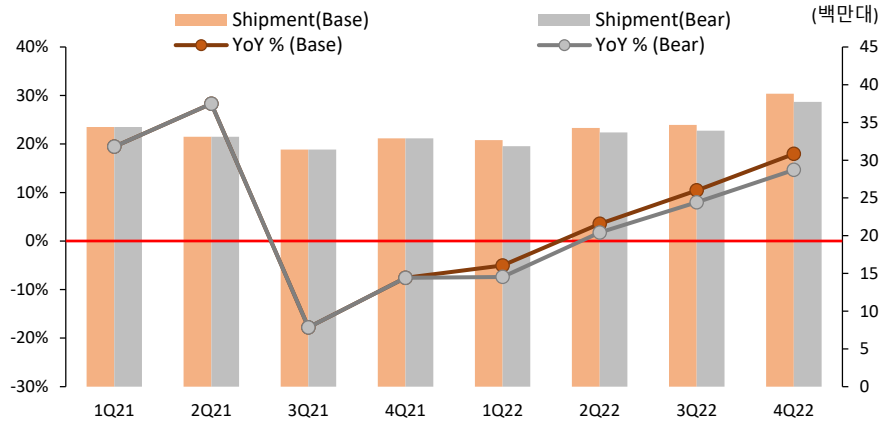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남미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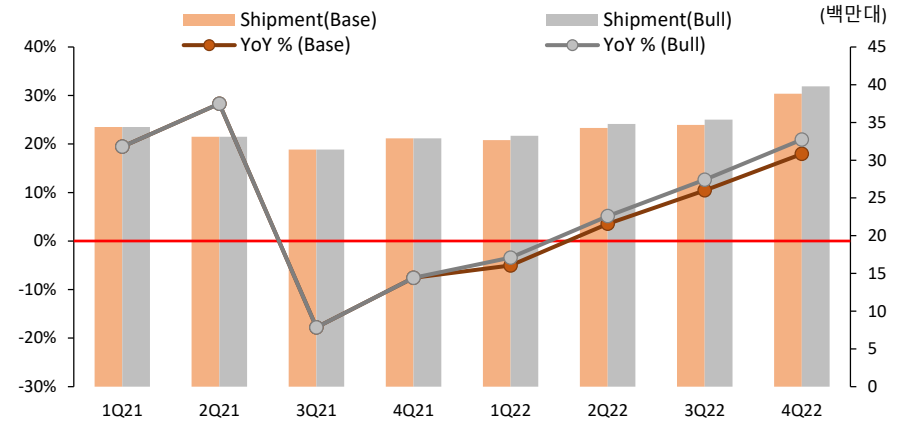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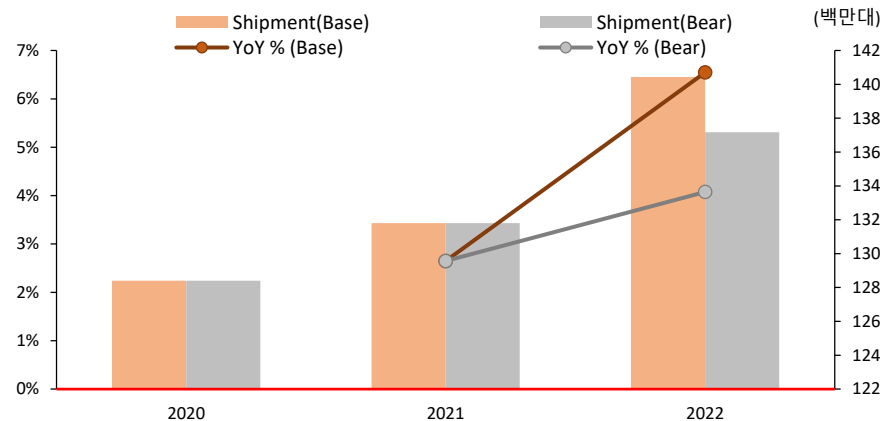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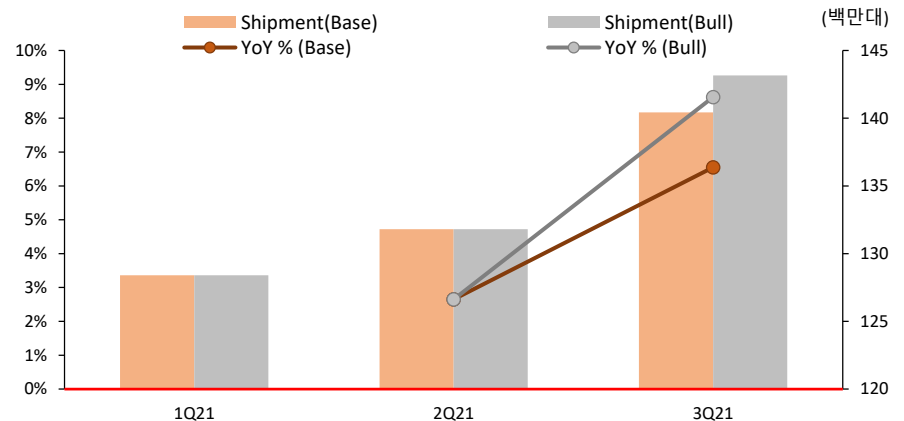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3억대 YoY +6% 기록
- 2022년 출하량: 1.4 ~ 1.5억대 YoY +5 ~ +12% band 추정
- 올해 하반기 부품 공급 부족 사태 완화 및 경기 회복 기대감. 소비 여력이 높은 선진 시장 중심 스마트폰 수요도 가장 빠르게 회복 예상
- 서유럽 지역 내 점유율 삼성전자 29%, Apple 33%. Xiaomi의 점유율 상승세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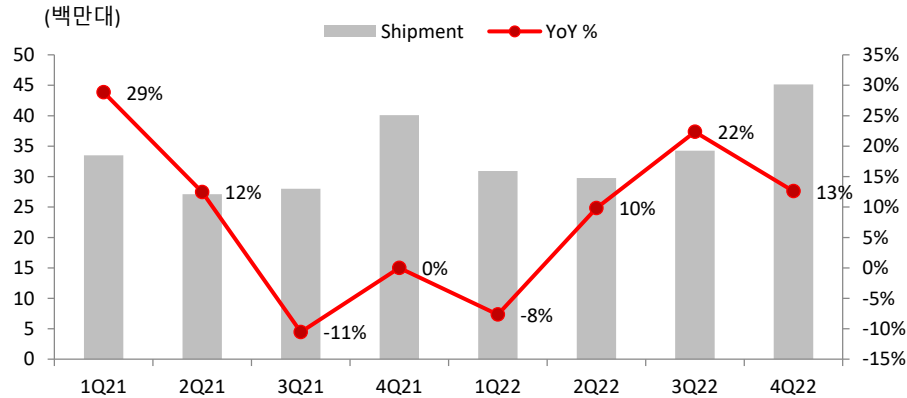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4	27	28	40	31	30	34	45		122	129	140
Bear	34	27	28	40	30	29	33	43		122	129	135
Bull	34	27	28	40	32	31	35	47		122	129	145
YoY %												
Base	29%	12%	-11%	0%	-8%	10%	22%	13%		-9%	6%	9%
Bear	29%	12%	-11%	0%	-11%	7%	18%	7%		-9%	6%	5%
Bull	29%	12%	-11%	0%	-6%	13%	27%	17%		-9%	6%	12%
M/S % in Base												
Samsung	33%	24%	31%	26%	40%	27%	28%	27%		30%	29%	30%
Apple	31%	28%	27%	41%	30%	26%	29%	39%		31%	33%	32%
Huawei	2%	1%	1%	0%	1%	1%	1%	1%		9%	1%	1%
Xiaomi	12%	18%	16%	11%	19%	13%	21%	15%		10%	14%	17%
Oppo	6%	7%	7%	4%	7%	8%	8%	8%		4%	6%	8%
Vivo												

자료: SK증권

서유럽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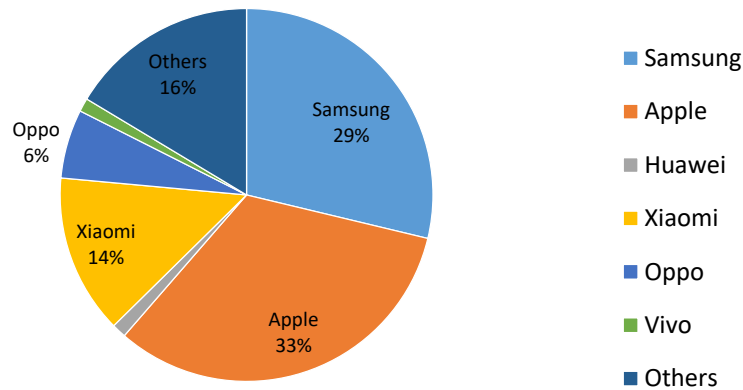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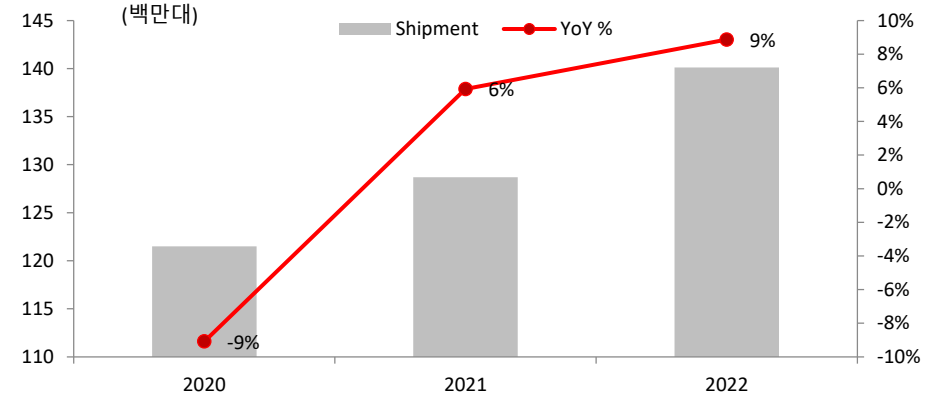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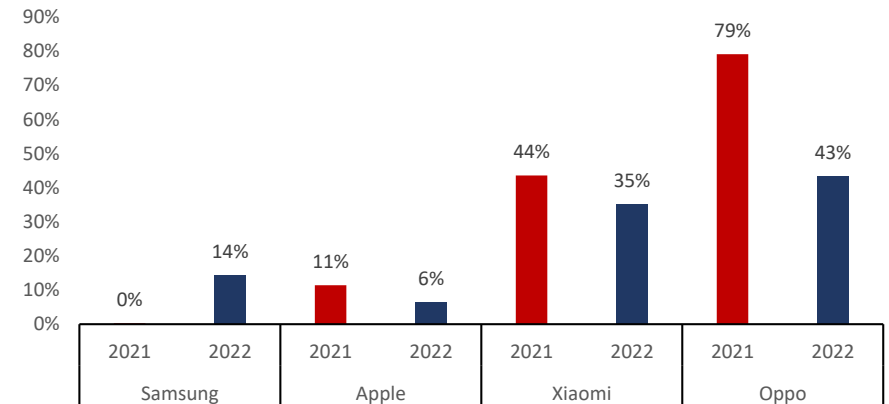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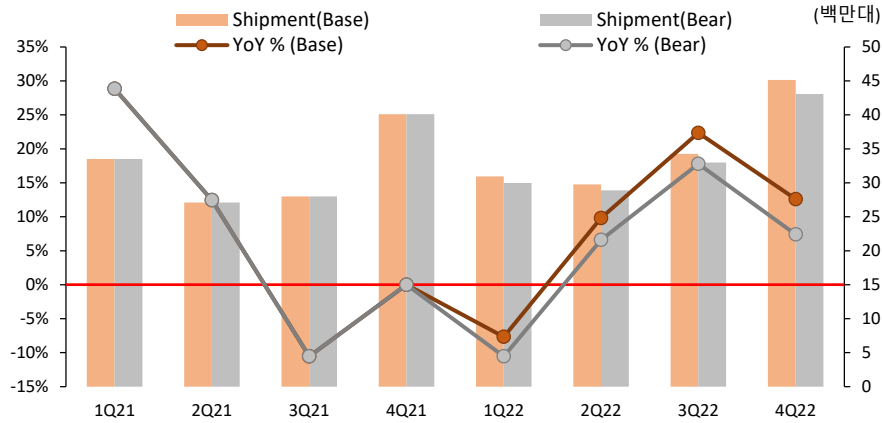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서유럽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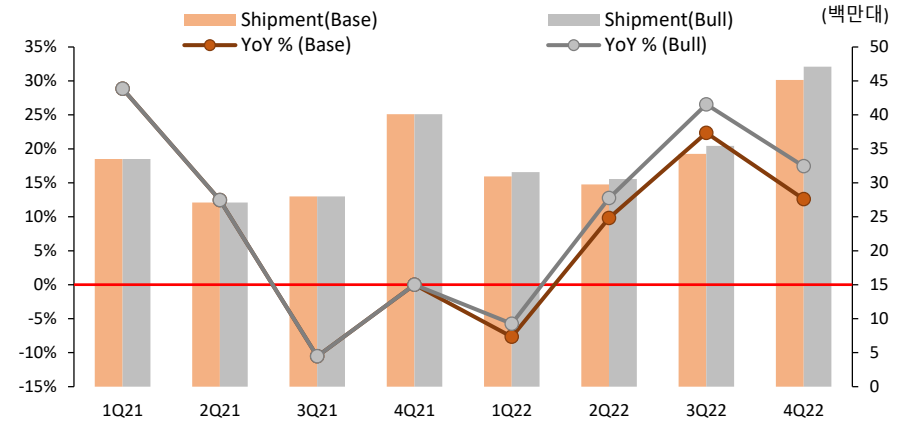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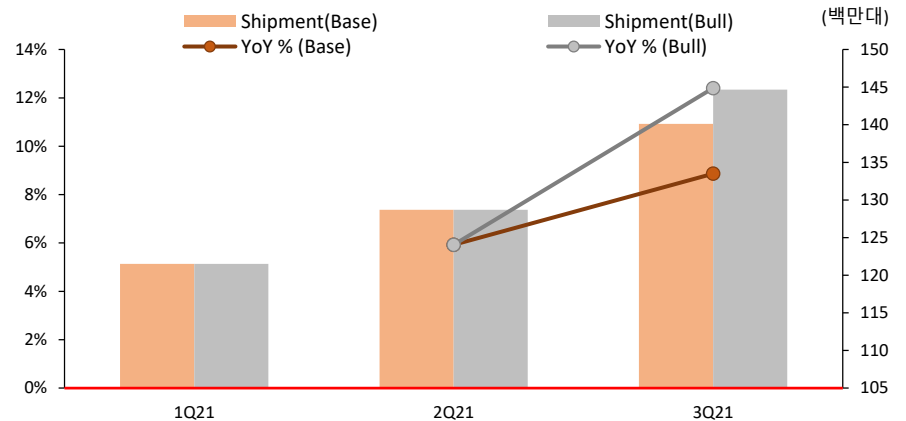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0.96억대 YoY -2% 기록
- 2022년 출하량: 1.0 ~ 1.1억대 YoY +3 ~ +10% 수준 추정
- 중화권 업체의 점유율이 해외 시장 중에서 높은 지역 중 하나. 부품 공급 부족 사태에서 중화권 업체가 상대적으로 타격이 커 2021년 역성장 시현
- 2022년 중화권 업체의 부품 조달 이슈가 서서히 해소되면서 시장 수준의 회복세 전망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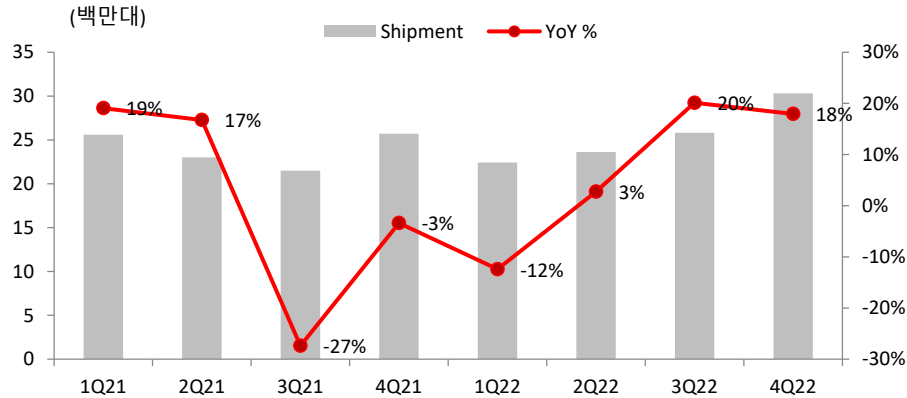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26	23	22	26	22	24	26	30		97	96	102
Bear	26	23	22	26	22	23	25	29		97	96	98
Bull	26	23	22	26	23	24	27	32		97	96	106
YoY %												
Base	19%	17%	-27%	-3%	-12%	3%	20%	18%		2%	-2%	7%
Bear	19%	17%	-27%	-3%	-15%	0%	15%	12%		2%	-2%	3%
Bull	19%	17%	-27%	-3%	-11%	6%	24%	23%		2%	-2%	10%
M/S % in Base												
Samsung	32%	23%	33%	30%	32%	30%	31%	30%		30%	30%	31%
Apple	10%	8%	7%	11%	12%	8%	9%	13%		8%	9%	10%
Huawei	9%	3%	1%	4%	9%	9%	9%	9%		19%	4%	9%
Xiaomi	27%	34%	27%	23%	27%	27%	26%	26%		21%	28%	26%
Oppo	3%	4%	5%	4%	4%	5%	5%	4%		2%	4%	5%
Vivo												

자료: SK증권

중양 및 동유럽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s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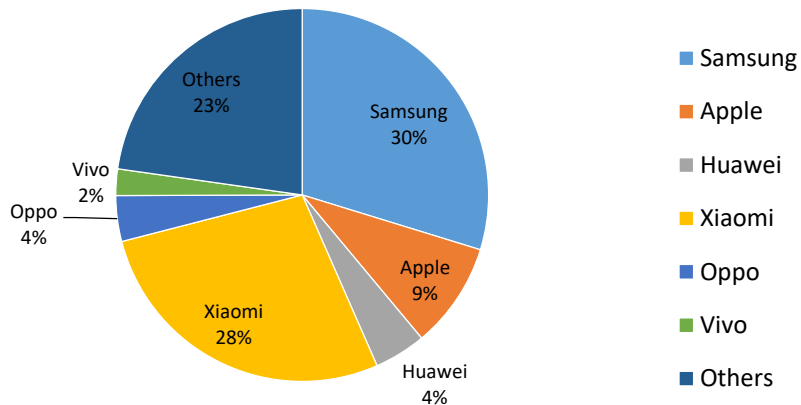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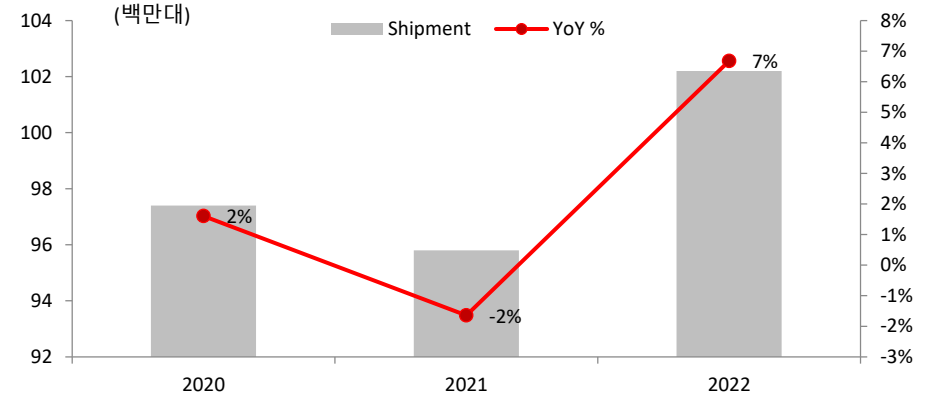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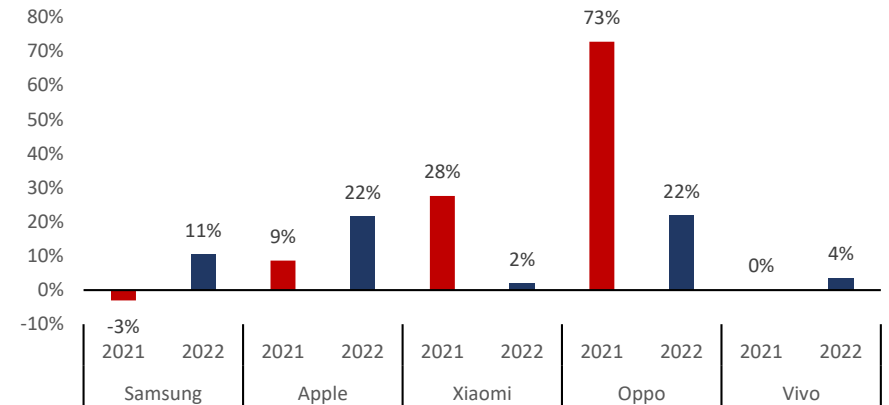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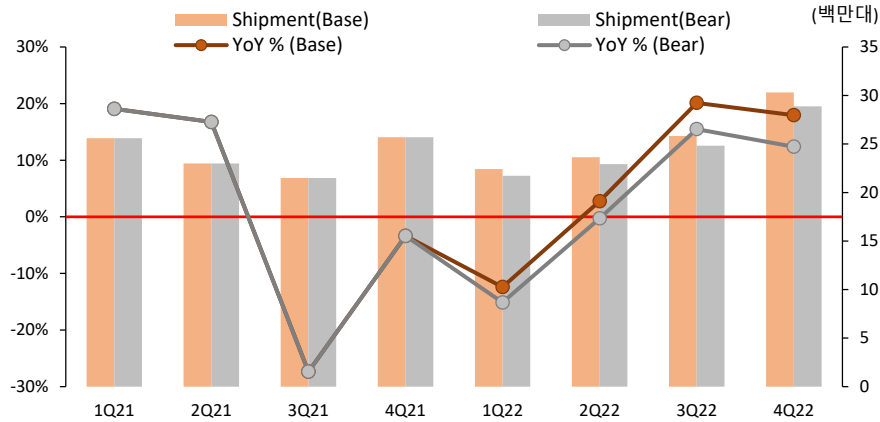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중앙 및 동유럽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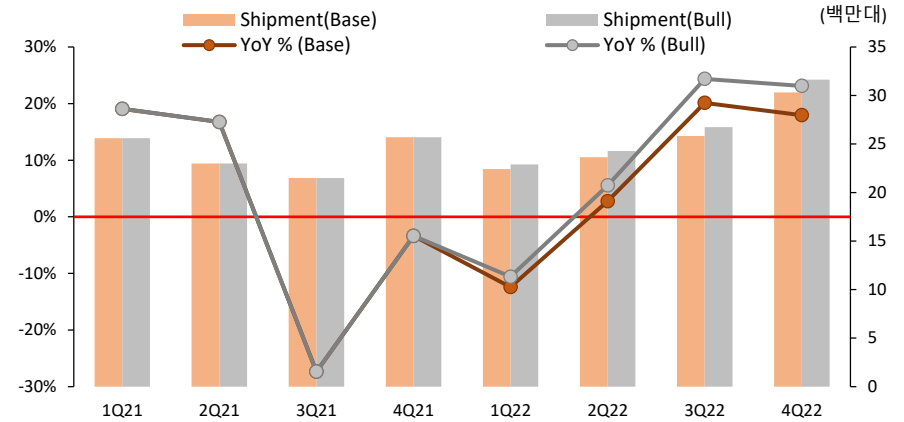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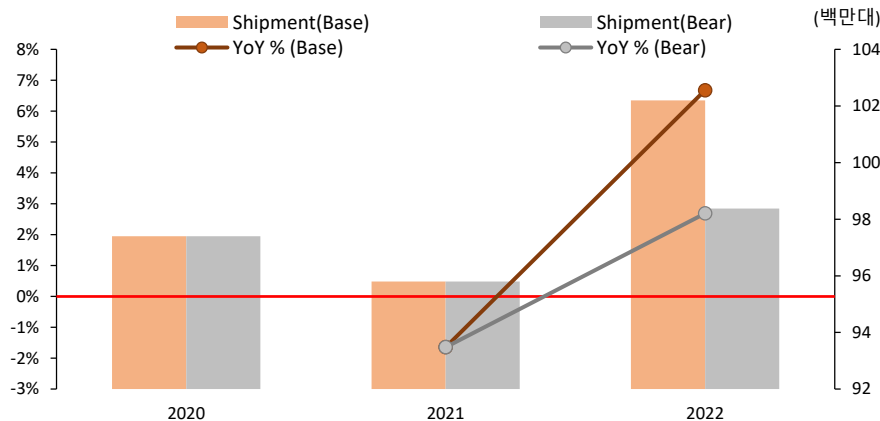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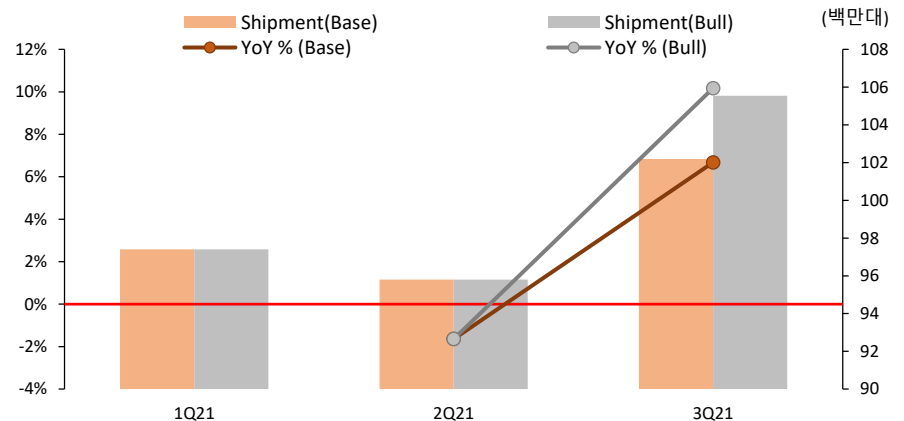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6억대 YoY +15% 기록
- 2022년 출하량: 1.7 ~ 1.8억대 YoY +4 ~ +12% band 추정
- 2021년 인도와 더불어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 성장한 시장. 여전히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도 이후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서 가능성 확인
- 삼성전자 점유율 25%로 1위. 3rd tier 업체들로 흩어진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이 향후 과제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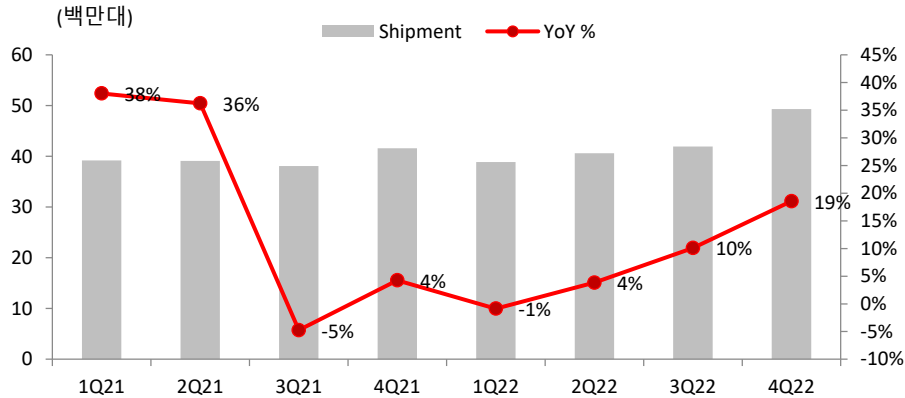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9	39	38	42	39	41	42	49		137	158	171
Bear	39	39	38	42	38	39	40	47		137	158	165
Bull	39	39	38	42	40	42	43	52		137	158	177
YoY %												
Base	38%	36%	-5%	4%	-1%	4%	10%	19%		-4%	15%	8%
Bear	38%	36%	-5%	4%	-3%	1%	6%	13%		-4%	15%	4%
Bull	38%	36%	-5%	4%	1%	7%	14%	24%		-4%	15%	12%
M/S % in Base												
Samsung	28%	23%	26%	23%	26%	25%	25%	25%		25%	25%	25%
Apple	7%	6%	5%	8%	11%	11%	11%	11%		7%	7%	11%
Huawei	3%	1%	1%	1%	0%	0%	0%	0%		11%	1%	0%
Xiaomi	11%	13%	10%	9%	12%	12%	12%	13%		6%	11%	12%
Oppo	5%	7%	7%	6%	7%	8%	8%	8%		4%	6%	8%
Vivo												

자료: SK증권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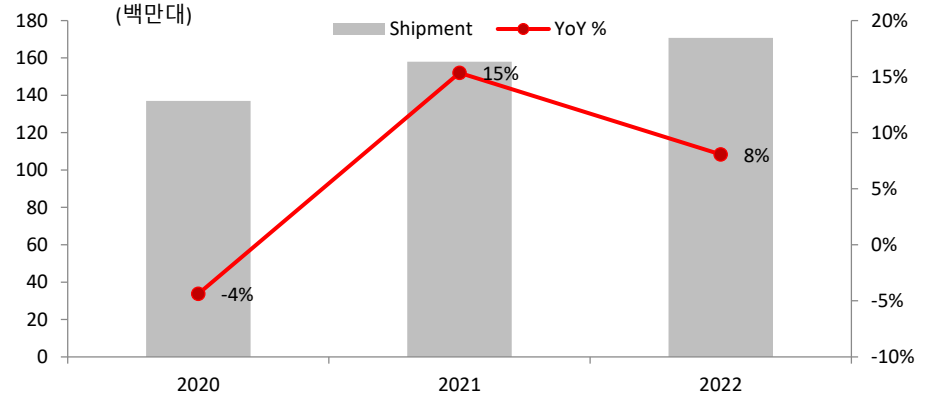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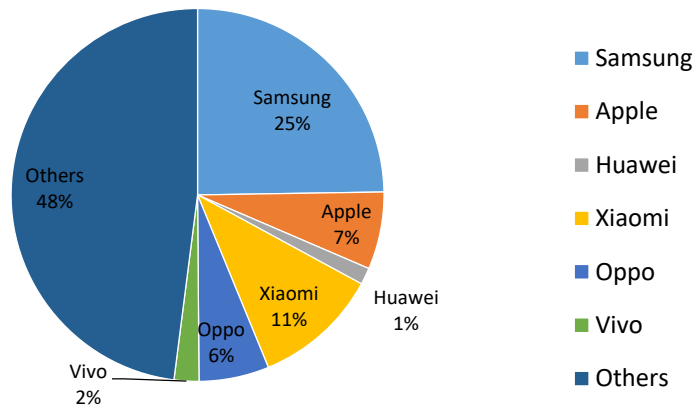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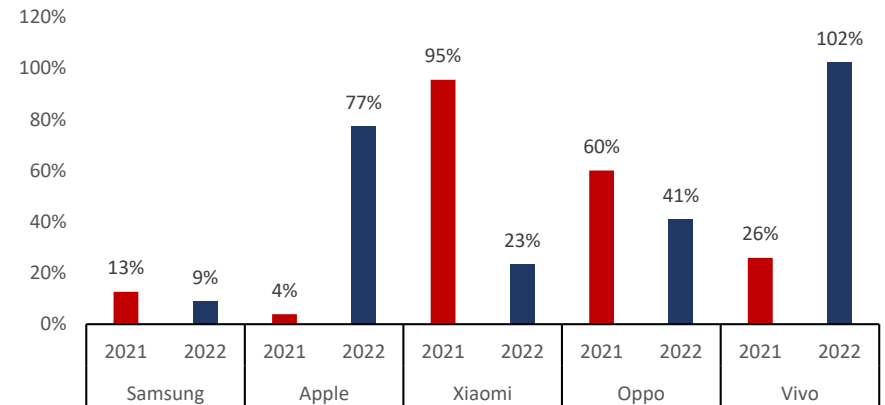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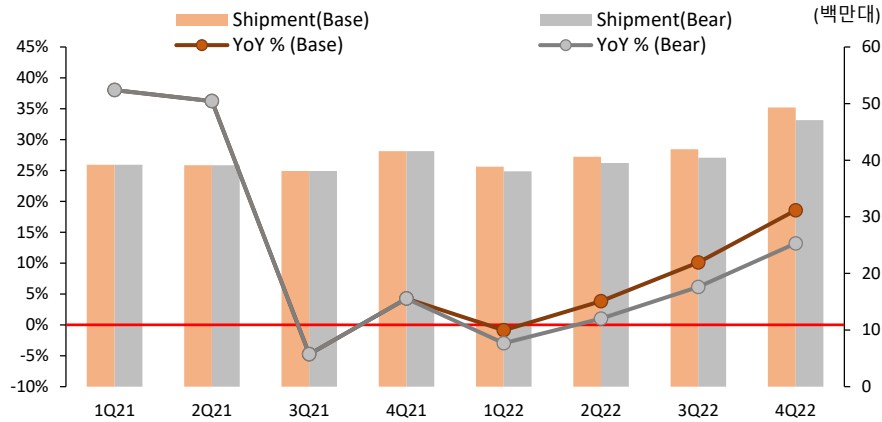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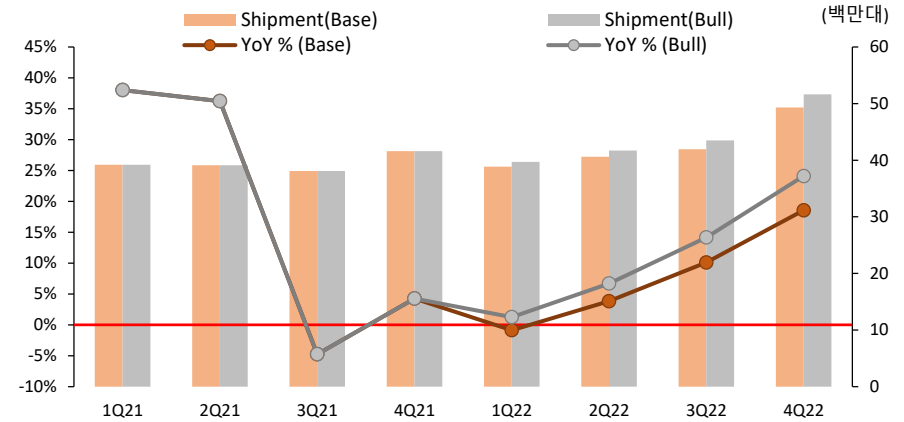
Industry Analysis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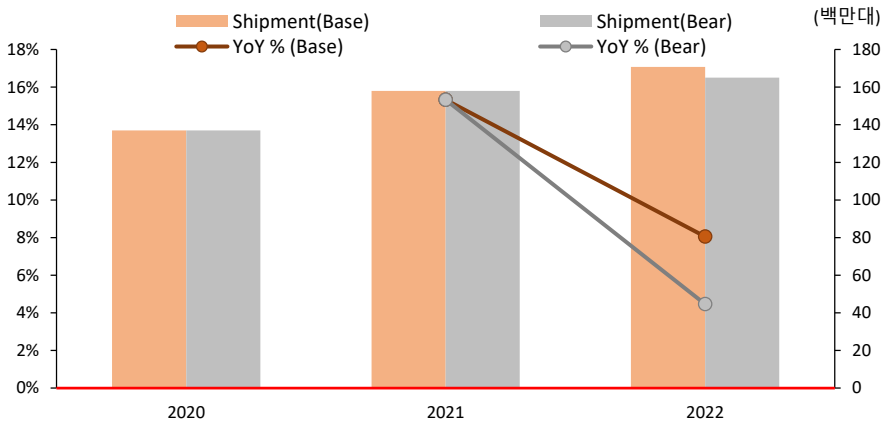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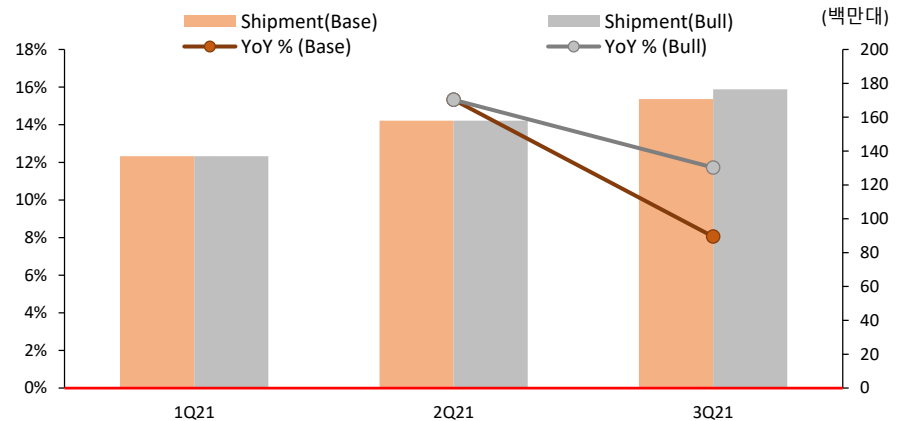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